

2024-CR-01

작은연구 좋은서울 24-09

지방대를 졸업하고 서울권 대학원에 진학한 학생은 어떤 경험을 하는가?

김지인



**지방대를 졸업하고 서울권 대학원에 진학한
학생은 어떤 경험을 하는가?**



연구책임

김지인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혁신과 공존의 교육연구사업단 박사후연구원

연구진

유주영 대구교육대학교 교육학과 조교수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서울특별시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목차

01 서론	1
1_연구 배경 및 목적	1
2_연구 내용 및 방법	3
02 문헌연구	5
1_한국에서 청년으로 살아가기	5
2_한국 대학원생 현황	8
3_대학원생 관련 선행연구	11
4_교차성 및 불평등 관련 선행연구	16
03 연구 방법	20
1_양적 연구	20
2_질적 연구	23
04 연구 결과 I : 양적 연구	26
1_기술통계	26
2_로짓분석 결과	28
05 연구 결과 II : 질적 연구	35
1_대학원이라는 새로운 세계	35
2_지방대학 출신 학생의 서울권 대학원 경험	39
3_서울권 대학 출신 학생의 서울권 대학원 경험	46

06 결론 및 제언	52
1_결론	52
2_제언	54
참고문헌	57

표 목차

[표 2-1] 고등교육기관 재적학생 수	9
[표 4-1] 설문참여자의 기술통계	26
[표 4-2] 대학원 경험에 관한 응답 기술통계	27
[표 4-3] 대학원 진학에 대한 로짓분석 결과	28
[표 4-4] 경제적 지원에 대한 로짓분석 결과	30
[표 4-5] 정서적 지지에 대한 로짓분석 결과	31
[표 4-6] 관계와 소속감에 대한 로짓분석 결과	32
[표 4-7] 대학원 학업에 대한 로짓분석 결과	33
[표 4-8] 진로에 대한 로짓분석 결과	34

01. 서론

1_연구 배경 및 목적

‘서울 공화국’이라는 표현은 많은 인구가 서울로 쏠리며 각종 의료, 문화적 혜택이 서울에 모여있는 것을 비판하는 말이다. 현재 국민 두 명 중 한 명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은 과히 서울 공화국이 되었다. 서울로의 상경은 특히 젊은 인구를 중심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2013년에서 2022년까지 약 10년간 수도권 지역(서울, 경기, 인천)으로 순 유입된 20대 인구가 59만 명에 달하며 서울로 순 유입된 20대 인구는 34만 명이었다. 이 수치는 계속하여 증가하는 중인데, 2013년에는 2만여 명이 서울로 순 유입되었지만, 2022년에는 2배 이상인 5만여 명이 유입되었다. 반면 비수도권에서 인구가 순 유입된 경우는 세종시가 유일하다. 증가하는 수도권로의 인구 유입, 특히 20대의 수도권 유입은 취업과 학업이 주요한 이유이다(안지호, 2023). 수도권으로의 청년 유입은 지방소멸 위기와 함께 서울에 상경한 지방 청년들을 위한 정책 또한 필요로 한다.

무엇보다도 한국은 학력과 학벌이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점에서 청년의 대학원 진학도 증가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고등교육의 대중화에 따라 대학원 진학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권현주, 주동범, 2023). 특히 한국에서 대학원 진학자 수가 증가하는 만큼 지방대학을 졸업한 후 서울에 소재한 대학원에 진학한 청년은 점차 많아질 것이다.

주의 깊게 보아야 할 점은 대학 입학생도 수도권 쏠림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현재, 대학원 진학은 그 현상이 더 심할 것으로 본다. 교육부의 교육기본통계조사 결과, 2022년 대학 정원에 미달한 인원 4만 586명 중 3만 358명이 비수도권에서 발생했다. 지역거점 국립대학교 중에서도 많은 학교가 추가 모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입학 정원을 채우지 못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학원 진학은 수도권으로 더 몰릴 것이다.

그러나 서울에 상경한 청년들은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서울에 상경한 청년들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빈곤에 노출되어 있다. 높은 서울의 집값으로 청년들은 대출에 주거비를 의존하고 있으며, 높은 이자율로 인해 부담을 느끼고 있다(송기영, 2024). 정신적으로도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수도권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비수도권의 청년들보다 스트레스와 우울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수비 외, 2021; 지은주 외, 2024). 이러한 우울과 상대적 박탈감으로 청년들은 미래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자살 충동과 같은 행동을 일으킬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 청년들은 취업과 학업을 이유로 서울에 상경하지만, 서울에서 또 다른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

본 연구는 서울로 청년들이 상경하는 상황 속에서 대학원 학업을 위해 서울에 상경한 대학원생의 경험을 탐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대학원생이 겪는 어려움에 대한 연구나 대학교 진학을 위해 상경한 청년에 대한 어려움과 취업을 위해 상경한 청년의 어려움에 대해서 다수 연구된 바 있지만, 현재까지 대학원 진학을 위해 상경한 대학원생에 대한 연구는 없다.

대학원생의 학업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는 처음 만나는 지도교수와의 관계, 연구 초심자로서 불확실성, 글쓰기를 처음 해보는 경험 등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였다(김혜나 외, 2013 박지현, 김현주, 2000). 특히 여성 대학원생은 대학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를 둔 대학원생의 경우는 어머니 역할과 대학원생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기에 제한적인 시간이 부족함을 느꼈으며, 엄마로서 모성 비관과 자책감, 주변 동료들의 이해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서정원, 2015). 지방대 출신의 서울권 대학원생에 대한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학부 대학생활을 어디서 보냈는지에 따라 대학원생은 다른 경험을 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지방대 학생은 수도권 학생과 다른 경험을 하고 차별화된 담론을 가지고 있다(최종렬, 2017). 하지만 다수의 연구대학은 서울에 위치하고 있어 지방대 출신의 학생도 서울권 대학원에 진학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지방에서 대학을 마치고 서울에 처음 오는 학생의 경우 외국인이 겪는 새로운 문화에 대한 적응이 필요할 수도 있으며, 진학 그 자체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지방에서 수도권의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은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원래 수도권 출신인 학생보다 어려움을 겪는다고 밝혀진 바 있다(임윤서, 안윤정, 2017). 청년기의 중요한 시기를 지방에서 보내고 다시 대학원에 적응해야 하는 지방대 출신 학생은 대학원생으로서의 어려움과 동시에 서울에서의 적응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 학부 대학의 지역이 지방이나 수도권이나에 따라서

대학원 경험이 다른지에 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연구할 필요가 있다. 지방에서 대학을 졸업한 후 서울에 소재한 대학원에 진학한 청년은 길어진 성인이행기를 겪으며 대학원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을 것이다. 이들이 대학원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경험을 탐색하는 것은 지방대학을 졸업한 후 서울 소재 대학원에 진학한 청년의 삶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서울의 청년 정책과 고등교육 관련 정책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_연구 내용 및 방법

학생들은 학교와 같은 교육기관에서 지식을 습득하는 것뿐 아니라 다양한 상황을 마주하며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된다. 그 경험 중 일부는 살아가는 데 중요한 자산이 되기도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차별과 배제를 경험하기도 한다. 모든 학생이 동질적인 경험을 하는 것은 아닌데, 개인의 특성과 주변 환경에 따라 학생들은 상이한 경험을 할 가능성이 높다. 먼저 가정의 계층에 따라서 학생들은 학교에서 다른 경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 Lareau(2018)는 중산층 부모는 자녀와 교사의 관계와 대화법, 어떤 또래 친구를 사귀게 될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한다고 주장한다. 자녀가 교사에게 적극적으로 질문하도록 하고, 교우 관계 또한 같은 동네의 친구보다 비슷한 비교과 활동을 하는 친구를 사귀도록 돕는다. 중산층 부모의 자녀 교육 상황에서의 개입은 노동자 계층 부모의 개입과 차이가 있으며 상이한 부모 개입은 자녀가 다른 경험을 하도록 한다. 인종에 따라 교육기관에서 적응도가 달라진다는 연구도 있다. Jack(2019)은 미국의 명문대학에서 흑인 학생의 자퇴율이 높은 이유는 흑인 학생이 새로운 문화적 상황에 노출되어 대학 문화 적응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고등학교 때 백인 가정의 문화를 경험한 흑인 학생은 흑인 학생임에도 비교적 대학 생활에 성공적으로 적응할 가능성이 높았다. 그뿐 아니라 대학 학업과 일을 병행할 시에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라 하는 일의 종류와 일에 대한 태도에서 차이가 있다(Jack & Bassett, 2024). 즉, 학생들은 교육기관에서 관계, 학교생활 적응 등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 개인과 환경의 특성에 따라 각기 다른 경험을 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의 대학교에서도 지방대 재학생과 수도권 대학생들은 다른 경험을 하며 다른 담론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주장되었다(최종렬, 2017). 한국의 대학은 강력한 학벌주

의와 함께 수도권과 지방대학으로 양분화되어 있다. 수도권에 명문대학이 집중되어 있어 수도권 대학이 학부모와 학생들 사이에 선호되고 있으며, 최근 수도권 대학 선호는 더 심화되어 지방국립대학도 외면받으며 수도권 대학 쏠림은 더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황희원, 2024). 따라서 지방대학은 비교적 선호되지 못하며, 때때로 낙후되었다고 인식을 받기도 한다. 더욱이 지방대학은 우등하지 못한 학생들이 모이는 주변부적인 공간이라는 차별적 양상이 나타난다(주형일, 2010). 지방대에 인식은 지방대생의 일상이나 가치관에 대한 담론을 형성하기도 하였는데, 지방대 담론은 지방대에 재학 중인 학생은 서울권 대학은 학생과는 다른 경험을 하고 다른 가치관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는 것이다(최종렬, 2017).

지방대를 졸업한 학생들은 취업시장에서 수도권 대학 졸업생보다 생활에 불리하다는 연구는 다수 제시되었으나(김준경, 2005), 이들이 계속하여 학업을 지속할 때 어떤 경험을 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 특히 최근 10년, 대학원을 진학하는 인구는 증가하고 있다(교육부, 2023). 대학원은 연구중심대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방의 과학기술원을 제외하면 다수의 연구중심대학은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다. 그러므로 많은 지방대학 출신 학생들은 대학원 진학을 위해서 수도권에 상경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지방대를 졸업하고 서울에 상경하는 학생들은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지방대를 졸업하고 서울권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은 지방대학에의 경험과는 다른 새로운 교육 환경을 경험할 가능성이 있으며, 지방대학과 대학원이라는 교차성 속에서 또 다른 차별과 배제를 경험할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지방대를 졸업하고 서울권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의 경험을 통해 지역 차이에 따른 교육 경험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02. 문헌연구

1_한국에서 청년으로 살아가기

1) 성인으로의 이행 기간 확대

한국 청년은 경제 위기와 취업난으로 성인으로의 이행 기간이 늘어나고 있다. 성인으로의 이행은 성인이행기(Emerging Adulthood)라고 부를 수 있다(Arnett, 2004). 성인이행기가 확대된다는 것은 청년의 연령 범위가 넓어지는 것을 말한다. 현재 청년들은 성인의 지표인 결혼, 취업을 하는 연령이 과거에 비하여 높아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초혼 연령은 2011년 남성 31.9세, 여성 29.1세였지만 2021년에는 남성 33.4세, 여성 31.1세로 높아졌다. 평균 출산 연령도 첫 아이 기준 2001년 27.99세였지만 2021년 32.61세로, 4.62세 높아졌다(유민상 외, 2022).

대졸 신입사원의 연령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한국의 대표적인 취업포털 인크루트의 조사 결과, 2018년 대졸 신입사원 평균 연령은 30.9세로 나타났다(신민정, 2020). 이는 1998년 25.1세였던 것에서 약 6세가량 증가한 수치다. 또한, 인크루트 조사 결과 대졸 신입 취업 나이 상한선에 대한 조사 결과 남성은 32.5세, 여성 30.6세였다. 취업난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입사원의 연령은 점점 증가할 것이고, 이에 따라 결혼의 연령도 높아지리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취업난이 심해지자 니트(NEET: Not in Education, Employment, and Training) 청년 또한 증가하고 있다. 교육기관에 소속되지 않고, 고용상태도 아닌 상태이다. 통계청의 조사 결과를 보아도 ‘쉬는’ 청년이 증가하고 있다. ‘쉬었음’ 인구는 비경제활동 인구 중 중대한 질병이나 장애는 없지만 막연히 쉬고 싶은 상태에 있는 청년층(15~29세)을 말한다. 2024년 7월 통계청 조사결과에 따르면, 일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고 ‘그냥 쉬었다’는 청년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조성현, 2024).

한국에서 청년들의 취업이 어려워지고,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청년 관련 다양한 담론이 생기기도 했다. 청년들의 암울한 미래를 표현한 신조어인 N포 세대, 이생망 등이 있다. ‘N포 세대’는 3포 세대라는 신조어로부터 나왔다. 3포 세대는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세대라는 뜻이다. N포 세대는 그에 더하여 N가지를 포기한 사람을 뜻한다(나무위키). ‘이생망’은 ‘이번 생은 망했다’의 줄임말로, 청년들이 자조적으로 쓰는 신조어다(나무위키). 청년의 불평등한 상황과 이에 대한 이들의 인식을 반영하여 나온 이러한 신조어는 한국 사회 청년의 어려움을 보여준다.

성인이행기가 길어지고 취업난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국 청년의 삶은 과거와는 달라졌다. 이들의 삶과 어려움에 대한 연구는 한국 청년의 자립과 지역균형 발전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본다.

2) 서울로 상경하는 청년의 현황

한국은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화가 심각한 수준이다. 이미 2019년 기준 한국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거주한다는 결과가 보고되었다(이상림, 2020).

서울로의 상경은 젊은 청년층을 중심으로 두드러지게 증가하고 있다. 2013년에서 2022년까지 약 10년간 수도권 지역(서울, 경기, 인천)으로 순유입된 20대 인구가 59만 명에 달하며 서울로 순유입된 20대 인구는 34만 명이었다. 이러한 수치는 지난 10년간 증가하는 중인데, 2013년에는 2만여 명이 서울로 순 유입되었는데 2022년에는 2배 이상인 5만여 명이 유입되었다. 반면 비수도권에서 인구가 순유입된 경우는 세종시가 유일하다. 증가하는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입, 특히 20대의 수도권 유입은 취업과 학업이 주요한 이유이다(문영만, 2020; 안지호, 2023; 이상림, 2020).

특히 서울 유입은 20대 초중반의 여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22년 기준 20~24세 여성의 순전입은 2만 4,322명이었다. 20~24세 남성이 1만 3,682명, 25~29세 남성이 1만 3,431명인 것을 보면, 20대 초중반의 여성은 서울의 주요한 청년 인구를 구성하고 있다.

성인이행기가 확대되면서 1인 가구도 증가하고 있다. 서울로 이동한 20대 여성의 1인 가구도 크게 증가하였다. 통계청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22년 성별, 연령별 1인 가구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비수도권 중소도시에서 서울로 이동한 1인 가구의 수는 20~24세 여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광역시에서 서울로 이동한 1인 가구의 수도 20~24세 여성이 가장 높았다(김동인, 2023).

이처럼 비수도권에 거주하던 청년이 서울로 이사하여 거주하는 현상은 점점 심해지고 있다. 수도권으로 젊은 층의 유입이 많은 만큼 비수도권의 젊은 층 유출로 인한 인구 감소는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구양미, 2021). 수도권으로의 청년 유입은 지방소멸 위기가 심각한 현재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3) 서울로 상경하는 청년의 어려움

서울로 상경한 젊은 청년들은 경제적, 정서적 등의 어려움을 겪는다. 경제적 어려움 중 주거에 대한 어려움은 특히 큰 어려움을 유발한다. 이미 치솟은 월세와 생활비는 물려드는 청년들로 인해 계속하여 높아지고 있으며, 수도권에서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다.

뉴스에 따르면(권중혁, 2024), 대출을 받은 청년 10명 중 7명은 전월세 등 주거비 목적이었다고 한다. 빚이 있는 청년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자율이 높아지고 있는 현재, 월세로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 3명 중 1명은 높은 이자율로 인하여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 정부의 청년 주거 정책이 있지만 전세 대출에만 집중되어 있고, 청년 전용 월세 대출도 있지만 까다로운 절차로 인하여 이용자가 저조한 수준이다. 수도권 대학졸업에 따른 청년의 일자리 등에 대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지방대학 졸업생은 수도권 졸업생보다 노동시장 이행에 있어 불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홍성표, 임한려, 2020). 임금수준도 비수도권 대졸자는 서울 소재 대학교 졸업자에 비하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서울 지역의 대학교 졸업자는 서울 소재 대학교 졸업자에 비하여 약 16% 낮은 임금을 받았고, 비서울 지역 대졸자는 전공과 맞지 않는 직장에 다니거나 소규모 업체에 다닐 확률이 높았다(김희삼, 2010). 김준경(2005)은 지방대 출신과 수도권 대학 출신 사이의 노동 성과 차이를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4년제 대학 졸업생이 전문대 졸업생보다 두드러지게 차이를 나타냈다고 한다. 지방에서 대학교를 졸업한 자들은 취업이나 임금 등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알 수 있다. 이처럼 지방에서 서울로 상경한 청년은 경제적 어려움이 심각하다. 이는 청년 빈곤을 악화시킨다. 청년빈곤의 더 큰 문제는 중장년 빈곤, 노년 빈곤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송기영, 2024) 서울로 상경한 청년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확대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청년의 서울로의 상경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들의 정신건강은 주목하여 볼 필요가 있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청년은 비수도권 청년보다 스트레스나 우울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수비 외, 2021; 지은주 외, 2024). 동남지방통계청(2023)의 조사 결과, 지역에 따른 청년의 주관적 건강과 삶의 만족에 대한 수치는 수도권으로 떠난 청년에 비하여 비수도권에 남은 청년의 정신적 건강과 삶의 만족도, 행복의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거주하는 청년이 비수도권 청년보다 경쟁적인 삶을 살아가야 하므로 정신적 건강의 수준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경쟁이 치열한 서울에서의 상황은 청년의 정신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상대적 박탈감이 높을수록 청년의 자살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이수비 외, 2022). 상대적 박탈감은 미래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하고 자살 생각으로 이어지게 한다(노가빈 외, 2021). 청년의 자살 생각, 자살 충동도 심각한 수준이다.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2021)에 의하면 코로나19 이후 청년의 25% 이상이 자살충동을 경험했는데 학력과 소득이 낮고 미취업 상태일 경우 자살충동이 더 높게 나타났다고 한다.

이와 같이 청년의 정신적 건강은 점점 악화되고 있다. 특히 비수도권에 살다가 서울 등의 수도권으로 거주를 이전하여 살고 있는 청년의 정신적 건강은 더욱 우려되는 상황이다.

서울로 상경한 청년은 신체적 건강 유지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김성아, 김정아(2024)에 따르면, 서울 시민의 아침식사 결식률은 2012년 21.1%에서 2021년 31.6%로 증가하였다. 연령대별로는 19~29세가 58.3%로 아침 식사 결식률이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30~39세 39.3%, 12~18세 38.3%로 나타났다. 20대와 30대 청년의 아침 결식률이 높은 만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경 청년의 건강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2_한국 대학원생 현황

1) 한국 대학원 및 대학원생 현황

(1) 한국 대학원의 현황

한국의 대학원은 「고등교육법」(법률 제20250호, 시행 2024. 8. 14.) 제29조의2에 따라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으로 구분된다. 일반대학원은 “학문의 기초 이론과 고도의 학술연구를 주된 교육목적으로 하는 대학원”을 말하고, 전문대학원은 “전문 직업 분야의 인력양성에 필요한 실천적 이론의 적용과 연구개발을 주된 교육목

적으로 하는 대학원”을 말한다. 특수대학원은 “직업인 또는 일반 성인을 위한 계속교육을 주된 교육목적으로 하는 대학원”을 말한다.

2023년 한국 고등교육기관의 수는 총 424개교다(교육부, 2023). 여기에는 일반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대학원, 전공대학,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사내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기능대학이 포함된다. 즉, 고등교육기관의 수에는 대학원을 운영하지 않는 고등교육기관이나 석사과정만 운영하는 대학원도 있을 수 있지만 많은 대학교에서는 대학원 과정도 운영하고 있다.

한국 일반대학원은 대학의 특성인 연구중심대학, 교육중심대학 등으로 구분되기도 하지만, 이와 관계없이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이수정, 김승정, 2020). 일반대학원은 학술연구라는 명목적인 목적 외에도 실질적인 목적으로 학문후속세대 양성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연구보다는 교육에 집중하기도 한다(신현석 외, 2013).

(2) 한국 대학원생의 현황

한국은 여전히 학력과 학벌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사회다. 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고등교육의 대중화는 대학원 교육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고 있다(권현주, 주동범, 2024). 교육부(2023)에 따르면, 고등교육의 전체 재적학생 수는 3,042,848명으로 전년 3,117,540명이었던 것에 대비하여 74,692명이 감소하였다. 이는 전년 대비 2.4% 감소한 수치다. 일반대학은 33,325명(1.8%) 감소하였고, 전문대학은 30,137명(5.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학원 재적학생 수는 336,596명으로 2,689명인 0.8% 증가하였다.

[표 2-1] 고등교육기관 재적학생 수

연도	고등교육기관	학부				대학원
		일반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타	
'23년	3,042,848	1,855,374	14,857	509,169	326,852	336,596
'22년	3,117,540	1,888,699	15,091	539,306	340,537	333,907
'21년	3,201,561	1,938,254	15,409	576,041	344,442	327,415
'20년	3,276,327	1,981,003	15,628	621,772	337,329	320,595
'19년	3,326,733	2,001,643	15,697	643,762	346,391	319,240
'18년	3,378,393	2,030,033	15,788	659,232	351,108	322,232

연도	고등교육기관	학부				대학원
		일반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타	
'17년	3,437,309	2,050,619	15,839	677,721	366,815	326,315
'16년	3,516,607	2,084,807	15,903	697,214	385,915	332,768
'15년	3,608,071	2,113,293	15,967	720,466	424,867	333,478
'14년	3,668,747	2,130,046	16,566	740,801	450,462	330,872
'13년	3,709,734	2,120,296	17,500	757,721	484,395	329,822
'12년	3,728,802	2,103,958	18,789	769,888	506,623	329,544
'11년	3,735,706	2,065,451	20,241	776,738	543,343	329,933
'10년	3,644,158	2,028,841	21,618	767,087	509,979	316,633
'00년	3,363,549	1,665,398	20,907	913,273	534,534	229,437
'90년	1,691,681	1,040,166	15,960	323,825	224,567	87,163
'80년	647,505	402,979	9,425	165,051	36,111	33,939
'70년	201,436	146,414	12,535	33,483	2,364	6,640

출처: 교육부, 2023, 2023년 교육기본통계 기본 내용. p.18.

이와 같이 저출생으로 학령인구와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원에 진학하는 자들은 증가하고 있다. 교육부는 신기술 분야의 고급 인재 양성을 위하여 석사와 박사의 정원을 증원한다고 밝히기도 하였다. 대학원생의 다양한 삶의 맥락을 파악한다면 이들의 학업에 도움이 되는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3) 서울 청년의 대학원 진학 경험

서울시와 서울연구원에서 조사한 패널 조사 결과에 따르면(2023),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35세 청년 중 대학 경험이 있는 응답자(4,652명) 중 대학원에 진학한 청년은 13.0%였고, 진학하지 않은 청년은 87.0%였다(변금선 외, 2023). 남성(50%)보다 여성(54%)이 대학원 진학 경험이 많게 나타났다.

또한, 위의 패널 조사 결과 부모의 교육 수준과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대학원 진학 경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교육 수준과 관련해서는 부의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대학원 진학 비율이 높았다. 모의 교육 수준도 유사한 경향으로 나타났다.

서울 청년의 대학 소재지와 전공계열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학부의 대학과 같은 학교로 진학하는 자가 많을 것이고, 대학원 진학 시 계열은 학부 때와 같거나 유사하게 진학하는 자가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대학 소재지는 서울 52.1%, 경기/인

천 22.0%, 광역시/세종시 7.2%, 기타 18.7%였다. 전공계열은 인문사회교육(인문계열, 사회계열, 교육계열) 47.5%, 자연공학(자연계열, 공학계열) 32.2%, 의/약학 5.2%, 예체능 13.0%, 기타(사관학교(육사, 해사, 공사) 및 경찰대, 기타) 2.1%로 나타났다.

2) 지방대학 졸업 후 서울 소재 대학원 진학 청년

지방대학을 졸업한 후 서울에 위치한 대학원에 진학한 청년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부재하다. 청년들이 취업과 대학, 대학원 진학을 이유로 상경하는 자들이 많다는 점에서 지방대학 졸업자가 서울 소재의 대학원에 진학하는 자들도 많을 것이다.

실제로 비수도권 대학 졸업자의 20%가 수도권으로 이동한다(서연미, 2023). 이러한 통계에 비추어 볼 때 대학 졸업 후의 서울 상경 또한 중요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2010년 이후로 매년 30만 명이 대학원에 재학 중이며, 이는 취업난으로 더욱 증가하는 추세이다. 다수의 연구중심대학이 서울에 위치하기에 계속하여 많은 지방대를 졸업생이 대학원 진학을 위해 서울에 상경할 것으로 예상된다.

3_대학원생 관련 선행연구

1) 대학원생이 겪는 어려움에 대한 선행연구

대학원생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다양한 차원에서 논의되어 왔다. 이 절에서는 대학원생이 겪는 어려움에 대한 선행연구를 학업 적응, 정서적 어려움, 위치성과 역할에 따른 어려움, 지방대를 졸업하고 수도권으로 진학한 자의 어려움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대학원생의 학업 적응에 대한 연구

대학원생은 학업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는다. 우선, 대학원의 학업에 적응하는 데는 지도교수나 동료, 선후배의 영향이 크게 작용한다. 지도교수 혹은 동료와의 정서적 지원 등은 독립적인 연구자로 성장하는 데 핵심적인 영향을 미친다(김승정, 2017; Zhao et al, 2007). 대학원 생활에서의 어려움은 지도교수의 유형에 따라서 달라지기

도 하였는데, 지도교수가 억압적인 성향을 가진 경우 대학원생의 학업중단 의사가 강해지고 지도교수가 학업을 지지하는 경우 학업중단 의사가 약해졌다(전재은 외, 2021). 지도교수와의 관계는 대학원생 사회화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이다(Hopwood, 2010). 또한 지도교수의 영향뿐만 아니라 동기 혹은 선후배 대학원생과의 교류와 지원은 학업 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임희진 외, 2016). 이러한 연구들은 대학원 생활을 하는 데에는 함께 연구하고 지지하는 자들의 영향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한지민 외(2024)는 석사과정 대학원생의 학업적응에 있어 촉진 요인과 저해 요인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대학원의 학업에 적응하는 데 있어 자신이 스스로 학습을 관리하고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대학원 학업에의 저해 요인으로서는 경험이나 역량 부족, 연구 및 논문 작성의 어려움, 교수의 지도 방식 등으로 나타났다(한지민 외, 2024). 또한, 대학원에서 수업을 들으며 연구해야 할 뿐 아니라 조교 활동이나 공동 연구에도 참여하는 등의 다른 일들도 많다는 것도 저해 요인으로 꼽혔다. 경제적인 부분도 해결해야 하는 대학원생은 학업을 원활하게 이어가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대학원생의 학업 적응에는 다양한 요소가 영향을 미친다. 대학원생 개인이 놓인 경제적, 사회적인 배경은 이들이 학업에 적응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지방에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 소재한 대학원에 진학한 자들은 학업 적응에 있어 그렇지 않은 자들과는 다른 어려움과 삶을 살고 있을 수 있다. 이들의 학업 적응에 대하여 이해한다면 지방에서 서울로 상경하는 청년을 위한 정책 마련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2) 대학원생의 정서적 어려움에 대한 연구

석사과정에 입학한 대학원생은 연구 초심자로 불확실성을 마주하며 어려움을 겪는다. 처음 마주하는 지도교수와의 관계, 사회에서의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며 논문에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을 겪기도 하였다(박지현, 김현주, 2020). 학자가 되어 가는 과정에서 학문적 글쓰기를 처음 접하며 겪는 어려움과 연구자로서 자신의 정체성에 혼란을 겪기도 하였다(박지현, 김현주, 2020; 한지민 외, 2024).

한지민 외(2024)에서도 대학원생 적응의 촉진 요인으로서 동료와의 상호작용과 풍부한 지원 등도 중요하다고 꼽았다. 학생 간 상호 존중과 믿음 및 신뢰를 통한 상호작용은 대학원생의 심리적 안정감과 연구자로서의 정체성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와도(김승정, 2019) 유사한 결과다. 또한 다른 사람의 피드백과 자신의 의견

이 상충하는 것을 느끼며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다(김혜나 외, 2013).

대학원생의 우울증도 주의 깊게 살펴볼 만하다. 특히 국내 대학원생의 우울감이 대학생의 우울감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경제적 부담이 높을수록 이전에 폭력적인 관계를 경험하였을수록 우울감은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다(김다혜 외, 2021). 학업 스트레스는 대학원 진학의 내적 동기가 낮고 외적 동기가 높을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고, 높은 학업 스트레스는 학업 지속이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기도 하였다(전재은, 김민선, 2021).

대학원생의 정서적인 어려움은 이들이 학업에 적응하는 데 중요한 부분일 것이다. 어떤 상황의 대학원생이 어떠한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지 분석한다면 이들의 안정적인 대학원 생활에 도움이 될 것이다.

(3) 대학원생의 위치성과 역할에 따른 어려움에 대한 연구

대학원에서 겪는 어려움은 학생의 위치성과 역할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 외국인 대학원생은 특히 학술적인 부분에서 전공지식을 익히는 것, 쓰기에 대한 불안함, 학술적 글쓰기에 대한 어려움을 겪는 것이다(유나, 박성석, 2021). 또한 외국인 학생들은 새로운 교수학습 문화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데 중국인 대학원생은 언어 문제 뿐 아니라 발표중심의 대학원 수업문화에서 적응이 힘들었으며, 수업 내의 논쟁에 참여하는데 어려움을 표하였다. 그 외에도 인간관계 형성에서도 한계를 느낀다고 표현하였다(김대형 외, 2007).

여성 대학원생 또한 대학원에서 특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녀를 둔 대학원생은 어머니 역할과 대학원생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기에 제한적인 시간이 부족함을 느꼈으며, 엄마로서 모성 비판과 자책감, 주변 동료들의 이해의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서정원, 2015). 남성의 비율이 높은 이공계 대학원의 여성 대학원생은 남성 중심적 문화로의 적응과 여성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경험을 있다고 언급하였다(김민선 외, 2016). 공과대학 여학생들은 남성 교수와의 상호작용에 대하여 낮은 만족도를 나타내기도 하였다(송효진, 신동주, 2014).

여성이 진로를 결정하는 데에는 개인의 심리적 특성을 포함하여 성차별 등의 사회환경의 맥락을 고려하여 이루어진다((McWhirter, Hackett, & Bandalos, 1998). 여성이 대학원에 진학하는 데에는 사회 문화적인 맥락과 불평등의 다양한 차원을 고려한 결정을 했으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도 남성 위주의 사회라는 점에서 여성이 대학원에 진학하여 학업을 이어나가

는 데에는 다양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남성중심적인 문화로 인하여 대학원을 중도 탈락하는 자들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 마련도 필요할 것이다.

(4) 지방대를 졸업하고 수도권으로 진학한 자의 어려움

여성과 외국인 대학원생이 겪는 어려움은 다수의 연구에서 보고되었으나, 지방대 출신의 서울권 대학원생에 대한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학부 대학생활을 어디서 보냈는지에 따라 대학원생은 다른 경험을 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지방대 학생은 수도권 학생과 다른 경험을 하고 차별화된 담론을 가지고 있다(최종렬, 2017). 하지만 다수의 연구대학은 서울에 위치하고 있어 지방대를 출신의 학생도 서울에 위치한 대학원에 진학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지방에서 학부를 마치고 서울에 처음 오는 학생의 경우 외국인이 겪는 새로운 문화에 대한 적응이 필요할 수도 있으며, 진학 그 자체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지방에서 수도권의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은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원래 수도권 출신인 학생보다 어려움을 겪는다고 밝혀진 바 있다(임윤서, 안윤정, 2017).

청년기의 중요한 시기를 지방에서 보내고 다시 대학원에 적응해야 하는 지방대 출신 학생은 대학원생으로서의 어려움과 동시에 서울에서의 적응 과정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아직 학부 대학의 지역이 지방이나 수도권이나에 따라서 대학원에 적응하는 것이 무엇이 다른지에 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연구할 필요가 있다.

2) 대학원생 생활 혹은 진로에 대한 선행연구

대학원생의 생활 혹은 진로에 대한 연구는 주로 하나의 전공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질적연구를 수행한 연구가 많다. 예컨대, 박순용, 김아람(2017)은 공대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대학원 생활과 진로에 대하여 질적 사례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공대 대학원생들은 연구직 취업을 꿈꾸면서 심도 있는 학문 탐구 등을 기대하며 대학원에 진학하였다고 한다. 대학원 생활을 하면서 밤낮과 주말 상관없이 연구실에서 시간을 보냈는데, 지도교수에 따라 재정 지원이나 연구의 환경 등에 차이가 있었다고 한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공대 대학원생을 위하여 강의 개선이 필요하고, 학과별 상담 시스템이 구축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대학원생의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와 졸업 후 처우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이수정, 김승정(2020)은 일반대학원의 교육학과 석사과정생의 대학원 학습경험에 대

하여 분석한 결과, 이들은 학업을 하면서도 프로젝트 보조자로 참여하면서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하기도 했다고 한다. 또한, 일부는 석사학위 과정에 대하여 취업을 하기 위한 스펙 쌓기로 활용한다고 한다. 노동시장에서 석사학위의 가치가 크게 없다는 점에서 지적하기도 하였다. 이를 토대로 석사과정생에게 체계적인 진로 지도가 강화될 필요가 있고, 다양해진 석사과정생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학원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임희진 외(2016)는 연구중심대학 석사과정 학생의 대학원 학습경험에 대하여 연구한 결과, 대학원생들은 대학원 생활에 대한 왜곡된 기대를 가지고 대학원에 진학했다고 한다. 또한 대학원은 방임적인 문화라고 문제를 제기하였고, 석사과정을 지내면서 진로 계획이 진학 전과는 달리 단기적이고 불명확하고 비관적인 형태로 변질되었다고 하였다. 연구자들은 학생들의 대학원 적응을 위해 대학원의 실체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학부 재학생이나 졸업생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고, 효과적인 지도와 지원을 위한 전공과 학과의 노력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종합하면, 대학원생의 생활을 이어가고 진로를 탐색하는 것은 전공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개인이 처한 배경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개인이 처한 배경에는 가족, 출신 지역, 사회 경제적 수준 등이 포함될 것이다. 대학원생의 다양한 맥락을 이해한다면 이들의 학업 적응과 진로 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3) 대학원생의 대학원 진학 동기에 대한 선행연구

대학원생의 대학원 진학 동기는 교육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권현주, 주동범, 2024) 주목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학원 진학 동기는 대학원에 적응하고 학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요하기 때문이다(Shin et al, 2018).

대학원생의 대학원 진학 동기에 대한 연구는 다양하다. 오창환, 정철영(2009)은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대학원 진학을 선택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연령, 대학원 졸업자의 사회적 대우에 대한 인식, 부모의 교육 수준 등이 대학원 진학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권현주, 주동범(2024)은 대학원 교육만족도에는 대학원 진학 동기와 대학소속감이 유의한 변인으로 작용한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대학원 교육만족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대학원생들의 소속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대학원 진학의 동기를 내재적 차원과 외재적 차원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연구도 있다.

예컨대, 임희진(2021)은 지방대학 중국인 박사과정 유학생을 대상으로 진학 동기를 분석한 결과, 이들은 대학교수가 되기 위하여 진학하였다고 한다. 이는 외재적 동기로서 대학원에 진학하였다는 것을 말한다. 외재적 동기는 박사과정 대학원생들이 학업을 지속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Bair, Haworth, 2004). 이는 경제적인 성공을 위하여 혈연이나 학연 등의 외적 요소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직장인이 대학원에 진학할 확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와도(길혜지 외, 2018) 연관된다. 차성현 외(2011)은 4년제 대학 졸업자의 대학원 진학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 포부 수준, 전공계열 등이 대학원 진학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연구에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졸업생의 대학원 진학에 대한 분석도 하였는데, 수도권 대학 졸업자는 비수도권 대학 졸업자에 비하여 대학원에 진학할 가능성이 3배 정도 높다고 하였다. 이는 수도권 대학 졸업자가 비수도권에서 대학을 졸업한 자보다 교육에의 접근 기회와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할 수 있다.

대학원에 진학하는 동기는 여러 요인들이 있겠지만 학부를 어느 지역에서 어떤 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졸업했는지에 따라 큰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방대를 졸업하고 다른 지역의 대학원에 진학한 자들의 진학 동기는 그렇지 않은 자와는 다를 것이다. 이를 파악한다면 대학원 진학 동기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고, 대학원과 각 지역에서는 이들이 학업을 지속할 방안 마련에 도움이 될 것이다.

4_교차성 및 불평등 관련 선행연구

성인이행기가 길어지고 있는 현재 대학원에 진학하는 청년은 대학 졸업 후 바로 취업한 청년에 비하여 성인이 되어가는 기간을 길게 보낸다. 대학원생이라는 사회적인 위치로 인하여 이들은 취업한 청년에 비하여 차별을 겪고 스스로가 느끼는 불평등함도 있을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서울에서 계속 살아온 청년이 아닌, 지방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에 소재한 대학원에 진학한 청년은 보다 차별과 불평등을 실제로 겪거나 느낄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이 장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교차성 이론과 불평등 관련 이론을 살펴보고자 한다.

1) 교차성

교차성 이론은 Crenshaw(1989)가 주장한 개념으로 흑인 여성이 겪는 차별과 불평등이 여성과 흑인이라는 두 개의 속성이 교차하여 단일한 속성의 차별이 아닌 다차원적인 불평등이 생겨난다고 주장한 것이다. 교차성은 한 개인의 차별과 억압을 한가지의 요소만 보고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고, 개인은 다차원적인 정체성과 특징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강조한다(김태선, 2020). 교차성에서의 정체성은 본질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사회 구조와 상호작용을 통해 새롭게 구성되는 정체성이다(박종주, 2018). 교차성은 인종이나 젠더, 계급 등의 사회 불평등 요소가 복합적인 차별을 발생시켜 차이나 다양성을 분석하는 데 사용되기도 한다(정숙정, 2021).

교차성과 관련하여 학자들은 개인이 지닌 다양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화와 특징 등을 포괄해서 한다면 RESPECTFUL 모형(D'Andrea와 Daniels, 2001), ADDRESSING 모형(Hays, 2008) 등을 제시하였다. RESPECTFUL 모형은 종교와 영성(R), 사회경제적 지위(E), 성역할과 성적 정향(S), 심리적 성숙도(P), 인종민족(E), 트라우마 경험(T), 가족배경과 역사(F), 장애 등 독특한 신체 특성(U), 거주지와 사용 언어(L)로 구성된 모형이다. ADDRESSING 모형은 연령과 세대(A), 선천적 장애(D), 후천적 장애(D), 종교와 영적 지향(R), 민족인종(E), 사회경제적 지위(S), 성적 정향(S), 토착유산(I), 국적(N), 성(G)을 포함한 모형이다(임은미 외, 2018). 교차성과 관련된 모형은 개인이 사회적, 문화적 맥락에 의해 지니게 된 특징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불평등의 사회적, 문화적 요소에 주목하게 한다고 할 수 있다.

교차성 연구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더하기 모델의 접근 방식이다. 더하기 모델은 단순히 불평등한 요소들이 쌓여서 독립적으로 누적 가능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이는 불평등한 요소들이 쌓여 다차원적인 측면을 분절적으로 환원시킬 수 있다(김보명, 2018). 이러한 점에서 교차성은 한 개인의 여러 정체성을 하나로 모으는 것뿐만 아니라 개인이 속한 문화나 구조의 문제를 지적하는 역할도 한다(박종주, 2018). Crenshaw는 구조에 집중하여 개인의 불평등에 대하여 바라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즉, 교차성은 불평등에 대하여 사회적, 구조적인 측면을 집중하게 한다.

교차성이라는 개념은 주로 젠더 관련 연구에서 활용된다. 교차성이 확산된 것은 1990년대 이후 미국 유색인 페미니스트 운동으로부터다. 미국 여성운동은 백인 중산층 기반으로 일어났는데, 흑인 여성들은 이들과 다른 경험과 요구를 지니고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정숙정, 2021). Crenshaw(1991)는 페미니즘이나 반인종주의를 다루

는 실천에서 유색인 여성이 배제되었다고 지적하였다.

교차성을 이 연구에 적용하면 지방대 출신으로 서울의 대학원을 재학 중인 학생들은 지방대 출신이라는 것과 수도권 대학원을 재학 중이라는 점에서 교차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이 학생들은 지방과 수도권의 고등교육을 모두 경험함을 통해서 다차원적인 경험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수도권 대학의 대학원에서 지방대 출신으로서 여러 방면에서 억압과 차별, 배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있다.

2) 불평등 관련 선행연구

교육 기회와 교육수준은 개인이 가진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달라진다는 주장은 (Blau and Duncan, 1967; Collins, 1979)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교육은 경제구조를 재생하는 역할을 하고(Bowles, & Gintis, 1976), 학교 교육은 사회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사회질서를 공고히 한다는 것이다(Collins, 1979). 이들은 학교가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지배계급의 가치를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은 담고 있다고 주장한다(Collins, 1979).

이와 관련하여 Bourdieu는 문화자본이라는 개념을 말하였다. Bourdieu는 ‘구별 짓기’라는 책에서 문화자본은 사회적 선발과 구별 짓기를 위한 문화적 태도, 선호, 행동 등 문화적 취향이라고 하였다. 문화자본은 경제활동에서 자본의 소유와 분배, 유통에 따라 계급이 구분되는 것처럼 언어나 지식, 사고, 가치, 취향 등을 말하는 문화자본도 계급에 따라 구분된다는 것이다. 그는 자본을 경제적 자본, 문화적 자본, 사회적 자본으로 구분하면서 계급 재생산에 있어 문화자본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Bourdieu는 문화자본의 대표적인 지표로서 학력 자본을 말하였다. 학력 자본은 “가족을 통한 문화계승과 문화계승(이러한 계승의 효율성 정도는 가족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 문화자본의 양에 따라 좌우된다)이 복합적으로 얹히면서 나타난 결과”라고 하였다.(Bourdieu, 1996: 51; 김영화, 2012: 35 재인용). 이러한 점에서 문화자본은 학생의 실제 학업적 능력과는 거리가 있을 수 있다. 문화자본은 어떠한 자격 등을 갖춘 자를 구별할 수 있는 있지만, 이것이 그 사람의 역량을 보장해 주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한국은 교육 경쟁이 심화되면서 교육 기회가 증가했다. 그러나 교육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었다(김종엽, 2003). 부모의 교육 수준과 직업 지위가 높으면 자녀의 대학 진학률이 높아졌다(방하남, 김기현, 2002). 이렇게 획득한 학력은 이후 노동시장에서

직업 불평등이나 소득 불평등을 야기하기도 한다(남춘호, 2003). 교육 불평등은 개인이 가진 문화자본에 따라 심화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현재 한국 청년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기회 불평등을 많이 경험한 세대다(김영미, 2016; 정수남, 김정환, 2017). 청년들은 타인과 자신을 상대적으로 비교하며 자신의 지위를 인식한다(김영란 외, 2017). 청년과 관련된 많은 담론들은 이들이 그만큼 많은 불평등을 겪었음을 보여준다. 예컨대, 수저계급론이 있다. 주로 경제적 차원에서 부가 많으면 ‘금수저’, 가난하다고 생각하면 ‘흙수저’로 표현한다. 이처럼 이들은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자신의 처지에 대하여 상대적 박탈감을 표현하기도 한다.

특히 한국에서 엘리트 집단은 견고하고 자리 잡아 불평등을 재생산한다. 명문대학은 사회 선별 장치로서 투자가치를 가지는 것을 넘어 그 대학의 졸업생에게 큰 사회적 자본을 제공한다(김종엽, 2003). 소위 명문대를 졸업한 집단은 서로 융합하여 동창이라는 집단의식으로 결속되는 것이다. 이렇게 견고하게 결속된 집단에 외부인이 진입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즉, 한국에서 공통 의식을 강하게 지닌 어떠한 집단에 외부인이 진입하기란 쉽지 않다는 것을 말한다.

03.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지방대를 졸업하고 서울에 상경한 대학원생의 경험을 살피고자 하였다. 연구 질문에 답하기 위해 양적연구 방법론과 질적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연구를 시행하였다. 이번 장에서는 첫째로 양적연구에서 사용한 연구 방법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질적연구를 위해 사용한 방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1_양적 연구

1) 연구자료 및 연구대상

연구를 위한 양적 자료 수집은 2024년 8월부터 9월 초까지 약 40일 동안 이루어졌다. 설문은 서울권 대학원에 재학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배부되고 조사되었다. 특히 설문 홍보는 연구중심대학으로 대학원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A 대학에서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는데, A 대학의 온라인 플랫폼인 에브리타임의 대학원생 게시판과 홍보 게시판에 주기적으로 게시되었다. 대면 홍보는 A 대학 학내 게시판을 통해 이루어졌다. 학내 게시판에 설문 참여 안내 포스터와 함께 설문 참여 QR코드가 공유되어 온라인 설문 참여가 가능하도록 홍보되었다. 대학원에 재학 중인 연구자의 지인에게도 설문 참여 포스터와 QR코드를 공유하여 설문 참여를 홍보하였다.

설문 내용은 대학원에서의 경험에 관한 문항들로 개발되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대학원에서의 교육 불평등에 대해 연구한 Hurst et al(2024)에서 활용한 대학원 경험에 관한 문항들을 활용하였으며, 추가적으로 대학원 진학 준비 경험에 관한 문항과 진로 준비에 관한 문항을 포함하였다. 대학원에서의 경험과 관련한 문항들 외에도 출신 대학교명,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 사회인구학적 변수를 조사하였다.

최종적으로 210명의 서울권 대학원 재학생이 설문에 참여하였다. A 대학을 중심으로 설문지가 배부되었기에 설문참여자의 80.95%(170명)는 현재 A 대학교 대학원에 재학 중이었다. A 대학 이외의 참여자 19.05%(40명) 중 60%(24명)는 연구중심대학의 대학원에 재학 중이었고, 40%(16명)는 연구중심대학이 아닌 대학원에 재학 중이었다. 출신 대학 지역을 살펴보면 서울 지역이 72.38%(152명)이며, 지방대학 출신이 23.80%(50명), 해외대학 출신이 3.80%(8명)였다. 해외대학 출신 설문 참여자의 경우 본 연구의 범위에서 벗어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최종 분석자료에서 해외대학 출신인 8명의 응답은 삭제되었다. 또한 주요 통제변수에 응답하지 않은 5명을 추가적으로 삭제하였다. 최종적으로 197명에 대한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2) 변수 구성

(1) 독립변수

독립변수는 설문 참여자의 출신 대학교의 지역이다. 본 연구는 출신 대학의 지역에 따라 대학원에서의 경험이 다를 것을 가정하고 있다. 특히 서울권 대학과 지방대학의 차이에 집중하고 있다. 따라서 경기도의 경우 수도권 대학으로 서울과 다른 지방대학보다 거리상으로 가까우나, 지방대학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지방대학교 학생들은 서울권 대학의 학생보다 다양한 경험을 하기 힘들며, 가정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설명된다(최종렬, 2017). 따라서 지방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에 상경한 대학원생의 경우 새로운 환경을 마주할 가능성이 크다. 조사된 출신 대학명을 바탕으로 연구자가 지방대학(=1)과 서울권 대학(=0)으로 코딩하였다.

(2) 종속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대학원에서의 경험이다. 대학원 경험에 관한 문항은 6개 영역 28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세부적으로 진학 관련 4문항, 경제적 지원 관련 6문항, 정서적 지지 관련 4개 문항, 관계와 소속감 관련 5개 문항, 대학원 학업 관련 5개 문항, 진로 관련 4개 문항이다. 문항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표 3]에서 볼 수 있다. 문항에 대한 답변은 ‘예’(=1)와 ‘아니오’(=0)로 응답하였다. 예를 들어 진학과 관련한 첫 번째 문항인 ‘나는 대학원을 진학할 때, 주위 친구나 선후배에게 정보를 얻고 도움을 얻었다.’에 대해서 동의하면 ‘예’(=1)로 응답하고, 아닐 시 ‘아니오’(=0)로 응답하였다.

(3) 통제변수

본 연구의 통제변수는 대학 교육, 교육 불평등과 관련한 선행연구들을 참고하여 선정하였다. 교육 불평등과 관련이 깊다고 알려진 부모의 교육 수준과 부모의 직업 계층을 조사하였다. 본 연구가 대학원에 관한 연구이기에 부모의 대학원 졸업 여부를 통해 부모의 교육 수준을 조사하였다(부모 중 대학원 졸업자가 한 명이라도 있음=1, 부모 중 대학원 졸업자가 없음=0). 부모의 직업 계층에 대한 응답으로는 EGP(Erikson-Goldthorpe) 직업 분류로 조사하였다. EGP는 직업군을 1) 전문직 및 관리직, 2) 사무직 판매 또는 서비스 분야, 3) 자영업, 4) 숙련노동자, 5) 비숙련 노동자, 6) 농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 중 ‘자영업’, ‘숙련노동자’, ‘비숙련 노동자’, ‘농어업’에 종사하는 경우 노동자 계층으로 코딩(=1)하였고, ‘전문직 및 관리직’, ‘사무직 판매 또는 서비스 분야’ 종사할 경우 중산층 계층(=0)으로 코딩하였다.

학생의 특성에 관한 변수는 전업 학생 여부, 학위과정, 성별, 나이, 혼인 여부에 대해 통제하였다. 먼저 학업과 다른 일을 병행하지 않을 경우, 전업 학생(=1)으로 분류하였고 학업과 다른 일을 병행할 경우 비전업 학생(=0)으로 코딩하였다. 학위과정에 대해서는 박사과정, 석박통합과정, 석사과정 중 하나를 응답하였으며, 박사과정과 석박통합과정은 하나로 합쳐서 박사과정(=1)으로 나머지는 석사과정(=0)으로 코딩하였다. 그 외에도 성별(여성=1, 남성=0), 나이(연속변수), 혼인 여부(미혼=1, 기혼=0)를 통제하였다.

3) 분석 방법

본 연구의 분석의 두 개의 단계로 이루어진다. 첫째, 조사된 자료에 대해 기술 통계를 분석하였다. 다음으로는 출신 대학의 지역에 따라 대학원에서의 경험이 달라지는 검증하기 위해 로짓분석(logit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종속변수는 설문 참여자가 대학원과 관련한 경험에 대해 ‘예’, ‘아니오’로 응답한 이분변수이며, 종속변수에 나타나는 승산비(odds ratio)의 값을 살펴보았다. 승산비가 1보다 크면 정적 효과를 의미하고, 1보다 작으면 부정적 효과를 의미한다.

2_질적 연구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지방대 출신 학생이 서울권 대학원에서 어떤 경험을 하는지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에 서울권 대학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서울권 대학원 중에서도 대학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연구중심대학을 표방하는 대학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중심대학(research university)은 연구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 대학을 말하며 교육중심대학과는 차별화된다. 연구중심대학은 연구를 목적으로 운영되기에 대학원의 운영이 활발하여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 적합하다.

한국의 연구중심대학 구분은 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되었다. 특히 교육부에서 시행한 대학원 중심대학 육성 지원사업 중 하나인 두뇌한국 21(Brain Korea 21) 사업을 중심으로 연구중심대학이라는 개념이 퍼지기 시작하였다(이영학, 2012). 2005년 교육인적지원부는 미국 카네기재단의 연구 분류를 참고하여 8개의 연구중심대학을 구분 기준을 개발하였다. 8개의 기준은 ① SCI급 논문 수('03) 250편 이상, ② 전임교원 1인당 논문 수 0.8편 이상, ③ 논문 피인용 횟수 150회 이상, ④ 전임교원 1인당 피인용 횟수 0.4회 이상, ⑤ 박사 재학생 수 300명 이상, ⑥ 석박사 비율 0.25 이상, ⑦ BK21 사업 15억 원 이상 지원, ⑧전체 재정지원 100억 원 이상 지원이다. 이 8개의 기준 중 6개 이상을 만족하는 연구중심대학 I 은 12¹⁾개교이다. 이중 서울권 대학원은 6개교이다. 본 연구는 이 여섯 대학 중 두 대학에서 연구 참여자를 모집하였다.

선정된 두 대학교 대학원은 연구중심대학임과 동시에 국내 유수의 명문대학이기도 하다. 선정된 두 대학은 세계대학평가인 QS 평가에서 최근 3년 동안 100위 내에 포함되었기에, 많은 대학원생이 선호하는 학교이다. 대학원의 규모 또한 방대한데, 학부생 수 대비 대학원생 수가 약 0.5배~1배에 달하기에 상당한 규모의 대학원을 구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두 대학 모두 대학원생을 위한 풍부한 지원을 하고 있다. 학교 차원에서의 대학원생을 위한 기숙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연구지원 장학금 또한 풍부하다. 두 대학에서는 대학원생을 위한 대표적인 지원프로그램인 BK21에서

1) 국내 연구중심대학 I 은 대학은 고려대, 서울대, 연세대, 포항공대, 카이스트, 경북대, 광주과학기술대, 부산대, 성균관대, 한양대, 이화여대, 전남대이다. 선정된 대학 중 지방에 위치한 대학은 6개교이며, 과학기술원을 제외하면 경북대, 부산대, 전남대 3개 대학이 있다.

평균 30개 이상의 사업단이 참여하고 있다.

선정된 대학에서 지방대 출신인 대학생의 비율에 대한 공개된 정확한 정보는 없으나, 지방과의 물리적 거리, 대학교를 졸업하고 자대 대학원에 진학하는 경향이 높다고 볼 때, 지방대학교 출신의 학생 비율이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12개의 연구중심대학 중 지방에 위치한 대학은 6개교이며, 극 중 세 대학만이 종합대학원의 형태를 가지기에 지방대 출신 학생이 연구중심대학으로 진학하려고 한다면 서울권 대학원에 진학할 가능성이 높다.

2) 연구 참여자

연구 참여자의 선정 기준으로 1) 대학에서 한 학기 이상 재학한 대학원생, 2) 사범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으로 정하였다. 본 연구는 대학원 경험에 관한 연구이기에 적어도 한 학기 이상 대학원에 재학한 학생이 유의미한 경험을 공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사범대학 학생으로 연구 참여자를 제한한 이유는 본 연구가 고등교육에 관한 연구임으로 사범대학 학생의 경우 교육 경험에 대한 깊은 성찰을 통해 면담 시 더 많은 생각을 나눌 수 있을 것을 기대하였다. 최종적으로 총 16명의 서울권 대학원에 재학 중인 연구 참여자가 모집되었으며, 8명의 지방대학 출신이면서 서울권 대학원에 진학한 학생, 그리고 8명의 서울권 대학 출신이면서 서울권 대학원에 진학한 학생이 모집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대 출신이면서 서울권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의 경험에 대해 연구하는 것이지만, 지역과 관계없이 대학원생으로 마주한 어려움을 이해하기 위하여, 두 집단의 경험을 비교 분석하기 위해 서울권 대학 출신 대학원생 또한 연구 대상에 포함하였다.

연구 참여자 모집은 지인을 통한 직접적인 연락과 눈덩이 표집을 통해 이루어졌다. 연구책임자는 국내의 대학에 근무하며 다양한 대학원생과 교류를 해왔다.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관련한 연구 안내문을 전달하였으며, 연구 참여 의사가 있을 시에 이메일을 통해 연락을 받았다. 또한 대학원생인 지인에게 관련 안내문을 전달하여 연구에 적합한 연구 참여자에게 안내문 전달을 부탁하기도 하였다. 연구진은 의도적으로 다양한 계층과 사회인구학적 구성의 학생을 연구에 모집하고자 하였다.

최종적으로 16명의 연구 참여자가 모집되었다. 연구 참여자의 성별은 남성 4명, 여성 12명이다. 사범대학에서 여성의 비율이 높기에 여성 연구 참여자의 비율이 남성보다 높았다. 재학 중인 학위과정은 석사과정 6명, 박사과정 10명이었다. 연구 참여자의

나이는 만 23세~만 39까지 다양하였다. 미혼인 참여자 9명, 기혼인 참여자는 7명이었으며, 기혼자 중 3명은 자녀가 있었다. 또한 서울권 대학 출신인 연구 참여자 8명 중 3명은 동 대학교 출신이었으며, 이 중 2명은 학부 때와 동일한 전공으로 대학원을 진학하였다. 면담자들은 모두 전일제로 대학원에 재학 중이었으며, 3명은 현직 교사이지만 학업을 위해 휴직한 상태이다. 본 연구는 연구 참여자의 익명성 보호를 위해 별도로 연구 참여자의 세부 정보를 제시하지 않는다. 연구 결과에서 연구 참여자를 명명할 때, 지방대 출신 연구 참여자는 ‘지방1’~‘지방8’로 표기하였다. 서울권 대학 출신 연구 참여자는 ‘서울1’~‘서울8’로 표기하였다.

3) 자료 수집 및 분석

연구의 자료 수집은 2024년 6월부터 8월까지 약 두 달간 두 명의 참여연구원에 의해 수집되었다. 연구자료 수집을 면담을 시행하였으며 면담은 51분부터 92분 사이로 이루어졌으며, 평균 64분 진행되었다. 모든 면담은 1회, 반구조화된 형태로 이루어졌다. 추가적인 질문이 있을 시 이메일을 통해 서면으로 질문하여 답변을 받았다. 모든 연구 참여자에게 면담 후, 소정의 사례비를 지급하였다. 면담은 연구 참여자의 상황에 따라 대면과 온라인 비대면 면담으로 이루어졌다. 대면 면담은 대학 내 강의실을 대여하여 조용하고 사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졌으며, 온라인 면담 또한 연구 참여자가 원하는 시간에 맞추어 진행되었다. 면담 전, 연구에 대해 설명문과 함께 면담 참여동의서를 받았다. 면담 시, 모든 면담은 녹음되었다. 면담은 면담 질문지에 따라 반 구조화된 이루어졌으며, 질문은 대학원 진학 준비와 과정, 대학원에서의 학업과 생활, 대학원 졸업 후 진로 준비로 이루어졌다. 면담 절차는 연구책임자 소속의 기관에서 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았으며,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

연구 분석은 전사된 면담을 반복적으로 읽으며 분석되었다. 연구자의 편견으로 연구 결과가 제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연구 질문은 개방형으로 비교적 거시적으로 질문되었다. 연구 결과는 서울권 대학교 출신인 학생과 지방대학교 출신인 학생 그룹으로 나누어 비교하며 분석하였다(Deterding & Waters, 2021). 연구진은 면담 전사 내용을 대학원 진학 준비 과정, 대학원 생활, 졸업 후 진로에 대한 생각으로 요약하였다. 이 세 가지 주제와 관련하여 반복되는 내용은 코드로 도출되었으며, 대학교 출신 지역에 따라 비교 분석되었다. 최종적으로는 대학원생이 되어 공통으로 겪는 경험과 출신 대학교의 지역에 따라 다른 경험으로 구성하였다.

04. 연구 결과 I : 양적 연구

1_기술통계

설문 자료를 통해 수집한 응답 중 본 연구에서 활용한 197명의 서울권 대학원생의 기초통계는 [표 4-1]에 나타나 있다. 지방대학 출신 학생은 약 25%로 서울권 출신 대학의 학생 수의 약 3분의 1 수준이다. 부모의 계층과 관련하여 약 40%의 부모 중 한 명이 대학원을 졸업하였다고 응답하였다. 2023년 고등교육 25세~64세 인구 중 고등교육을 이수한 인구가 55%임을 고려하였을 때, 대학원 졸업 비율이 40%라는 것은 높은 수치이다. 부모의 직업은 약 35%가 노동자 계층의 직업을 가지고 있고 중산층 계층의 직업은 약 65%였다. 여성의 비율이 70%로 남성보다 높았고, 대학원에 재학 중인 평균 나이는 29.3세였다. 86%의 학생이 전업 학생으로 재학 중이었으며, 46%는 박사 과정에 재학 중이다. 설문 참여자의 약 80%는 미혼이었고, 약 20%는 기혼자이다.

[표 4-1] 설문참여자의 기술통계

변수	설명	평균 (표준편차)
지방대 출신	응답자의 출신 대학교가 서울 외 지역=1, 응답자의 출신 대학교가 대학=0	24.87
부모의 대학원 졸업 여부	부모 중 적어도 한 명이 대학원 졸업=1 부모가 대학원을 졸업하지 않음=0	39.59
부모가 노동자 계층	EGP 직업 분류에 따라 부모의 직업을 노동자 계층=1, EGP 직업 분류에 따라 부모의 직업이 사무직 또는 관리직=0	35.02
여성	여성=1, 남성=0	70.56
나이	나이	29.30 (4.56)
전업 학생	전업 학생=1, 파트타임으로 대학원 재학 중=0	86.29
박사과정	박사과정(석박통합 포함)에 재학=1, 석사과정=0	45.68
혼인여부	미혼=1, 기혼=0	80.20

대학원 경험과 관련한 응답은 [표 4-2]과 같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진학’, ‘경제적 지원’, ‘정서적 지지’, ‘관계와 소속감’, ‘대학원 학업’, ‘진로’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표 4-2] 대학원 경험에 관한 응답 기술통계

	질문	평균
진로	나는 대학원을 진학할 때, 주위 친구나 선후배에게 정보를 얻고 도움을 얻었다.	0.738
	나는 대학원을 진학할 때, 교수님을 통해 정보를 얻고 도움을 얻었다.	0.524
	나는 대학원을 진학할 때,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를 얻었다.	0.805
	대학원 진학 전 지도교수님과 사전 컨택을 하였다.	0.671
경제적 지원	현재 나는 학과 내 장학금을 받고 있다(수업 조교, BK 장학금 포함, 근로성 장학금 포함)	0.519
	현재 나는 교내의 학과 외 장학금을 받고 있다(근로성 장학금 포함).	0.233
	현재 나는 교외 장학금을 받고 있다(민간기업, 외부 장학재단 지원 등).	0.119
	현재 나는 학업과 생계를 위해 학업과 관련 없는 일을 하고 있다.	0.238
	원가족으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일부라도) 받고 있다.	0.743
정서적 지지	학위과정을 위해 학자금 대출을 받았다.	0.262
	지도교수님은 나의 학업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신다.	0.757
	나는 적극적으로 대학원 생활에 도움을 주는 주위 동료나 선후배가 있다.	0.829
	학과 사무실/대학 행정실)에서 대학원 생활을 위한 적극적 도움을 준다.	0.595
	가족 구성원들은 대학원 학업에 대해 정서적으로 지지하며 도움을 준다.	0.933
관계와 소속감	나는 전공(또는 연구실)에서 소속감을 느낀다.	0.795
	나는 현재 소속 대학원에 대해 소속감을 느낀다.	0.790
	나는 전공 관련 학회에 대해 소속감을 느낀다.	0.467
	나는 대학원에서 동료들과의 관계에 어려움을 겪었다.	0.290
	나는 대학원에서 지도교수님과의 관계에 어려움을 겪었다.	0.233
대학원 학업	학부 때와 비교하였을 때, 나는 대학원에서 수업 내용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0.376
	학부 때와 비교하였을 때, 나는 대학원에서 토론 및 발표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0.381
	학부 때와 비교하였을 때, 나는 대학원에서 수업 과제를 제출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0.352
	학부 때와 비교하였을 때, 나는 대학원에서 시험을 치고 좋은 학점을 얻는 것에 어려움을 겪었다.	0.171
	나는 스스로 연구자로서의 자질이 있다고 믿는다	0.676
진로	나는 진로를 위해 다양한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0.586
	나는 진로를 위해 논문출판을 위해 노력한다.	0.757
	나는 진로를 위해 다양한 경험을 하고자 노력한다.	0.857
	대학원 졸업 후 진로에 대해 구체적으로 계획이나 목표가 있다.	0.571

2_로짓분석 결과

1) 대학원 진학

첫 번째로 대학원 진학과 관련한 로짓분석 결과를 [표 4-3]에 제시하였다. 진학과 관련하여서 4개의 문항에 대해서 조사하였는데, 이 중 출신 대학 지역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던 것은 문항은 교수님을 통해 정보를 얻었는지에 대한 질문이었다. 지방대 출신 학생보다 서울권 대학 출신 학생의 승산비가 0.414($\exp=-0.881$)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였다. 즉, 지방대 출신 학생은 서울권 대학 출신 학생보다 본인이 재학 중이던 교수님을 통해 대학원 정보를 얻을 가능성이 더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친구나 선후배를 통해 정보를 얻는 것,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것, 예비지도교수에 사전 연락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출신 대학의 지역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대학원 진학과 관련하여 통제변수의 효과를 살펴보면 주위 친구, 선후배에게 정보를 얻는 것에 대해 나이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나이가 많을수록 주위 친구나 선후배를 통해 정보를 얻은 경우가 많았다.

[표 4-3] 대학원 진학에 대한 로짓분석 결과

	주위 친구, 선후배에게 정보를 얻음	교수님을 통해 정보를 얻음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얻음	진학 전, 예비 지도교수에게 연락하였음
지방대 출신 (ref. 서울권 대학 출신)	0.753	0.414*	1.463	0.770
부모의 대학원 졸업 (ref.부모의 대학원 미이수)	1.259	0.882	0.907	0.497
노동자 계층 (ref. 중산층)	0.637	0.635	1.128	0.646
전업 학생 (ref. 비전업 학생)	2.372	1.366	0.494	1.742
박사과정 (cf. 석사과정)	1.290	0.851	0.444	1.822

	주위 친구, 선후배에게 정보를 얻음	교수님을 통해 정보를 얻음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얻음	진학 전, 예비 지도교수에게 연락하였음
여성 (ref. 남성)	1.301	1.136	1.966	1.054
나이	0.898*	1.000	0.920	0.912
미혼 (ref. 기혼)	0.368	0.806	1.577	0.874
N	197	197	197	197
Prob > χ^2	0.049	0.293	0.010	0.061

* $p < .05$, ** $p < .01$, *** $p < .001$

2) 경제적 지원

대학원 생활의 경제적 지원과 관련하여 출신 대학 지역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표 4-4), 생계와 관련하여 학업과 관련 없는 일에 참여, 원가족으로부터의 경제적 도움, 학자금 대출 여부에 대해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지방대학 출신인 학생들은 대학원에서 생계를 위해 학업과 관련 없는 일에 참여하는 정도가 서울권 대학 출신 학생보다 약 70% 낮았으며, 원가족에 도움을 받는 것도 60% 더 낮았다. 반면 학자금 대출을 받는 정도는 2.25($\exp=0.810$)배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지방대 출신 학생은 경제적으로 생계와 관련 없는 일을 하거나, 원가족의 도움을 받기보다는 학자금 대출에 의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경제적 지원에 대한 통제변수들의 효과를 살펴보면, 전업 학생 여부가 학과 내 장학금 수혜와 원가족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여부와 관련이 있다. 전업 학생이 비전업 학생보다 학과 내 장학금을 수혜를 받고, 원가족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교내(학과 외) 장학금을 받을 가능성이 낮으며, 나이가 많을수록 원가족으로부터의 도움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 경제적 지원에 대한 로짓분석 결과

	학과 내 장학금 수혜	교내 (학과 외) 장학금 수혜	교외 장학금 수혜	생계를 위해 학업과 관련없는 일에 참여	원가족으로 부터 경제적 도움	학자금 대출
지방대 출신 (ref. 서울권 대학 출신)	0.929	0.662	1.432	0.296*	0.400*	2.248*
부모의 대학원 졸업 (ref. 부모의 대학원 미이수)	0.899	1.687	0.932	1.534	2.417	0.913
노동자 계층 (ref. 중산층)	0.557	1.070	0.369	1.148	0.615	1.190
전업 학생 (ref. 비전업 학생)	4.988**	2.837	1.024	0.662	2.719*	0.501
박사과정 (cf. 석사과정)	1.214	0.577	1.364	0.618	1.045	0.519
여성(ref. 남성)	1.916	0.434*	0.477	0.706	1.644	0.956
나이	0.976	1.086	0.970	0.986	0.875*	1.036
미혼 (ref. 기혼)	1.738	1.652	0.552	0.936	1.165	0.940
N	197	197	197	197	197	197
Prob > χ^2	0.087	0.072	0.048	0.130	0.000	0.118

* $p < .05$, ** $p < .01$, *** $p < .001$

3) 정서적 지지

정서적 지지에 대한 로짓분석 결과는 [표 4-5]에 나타나 있다. 분석 결과 출신 대학의 지역과 대학생 생활에서의 정서적 지지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통제변수의 효과 또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4-5] 정서적 지지에 대한 로짓분석 결과

	지도교수 지지	동료나 선후배의 지지	학과사무실의 적극적 지원	가족구성원의 정서적 지지
지방대 출신 (ref. 서울권 대학 출신)	0.860	0.988	1.598	1.391
부모의 대학원 졸업 (ref. 부모의 대학원 미이수)	0.753	0.519	0.899	3.001
노동자 계층 (ref. 중산층)	0.475	1.264	0.759	0.380
전업 학생 (ref. 비전업 학생)	2.480	2.687	1.668	2.063
박사과정 (cf. 석사과정)	0.772	0.656	0.692	0.854
여성(ref. 남성)	1.439	1.696	0.936	1.324
나이	0.975	1.024	0.946	0.998
미혼 (ref. 기혼)	0.532	1.096	0.586	0.713
N	197	197	197	197
Prob > χ^2	0.227	0.412	0.265	0.469

* $p < .05$, ** $p < .01$, *** $p < .001$

4) 관계와 소속감

대학생 생활에서 관계와 소속감에 관한 로짓분석 결과([표 4-6])를 살펴보면 출신 대학 지역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위의 정서적 지지와 같이 다른 통제변수들에서도 유의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4-6] 관계와 소속감에 대한 로짓분석 결과

	전공 소속감	소속 대학원에 소속감	전공 관련 학회에 대한 소속감	동료들과 관계가 원만	지도교수와 관계가 원만
지방대 출신 (ref. 서울권 대학 출신)	1.379	1.022	1.248	1.039	0.887
부모의 대학원 졸업 (ref. 부모의 대학원 미이수)	1.524	1.232	0.858	1.029	1.260
노동자 계층 (ref. 중산층)	0.554	1.356	0.690	1.090	1.774
전업학생 (ref. 비전업학생)	3.634	1.172	1.415	4.705	1.389
박사과정 (cf. 석사과정)	0.971	1.156	1.021	2.049	2.346
여성(ref. 남성)	0.781	1.272	0.623	2.705	2.316
나이	0.960	0.947	0.962	0.976	1.024
미혼 (ref. 기혼)	1.123	0.902	2.138	1.171	2.088
N	197	197	197	197	197
Prob > χ^2	0.033	0.962	0.128	0.035	0.150

* $p < .05$, ** $p < .01$, *** $p < .001$

5) 학업

다음으로 대학원 학업에 대한 로짓분석 결과이다([표 4-7]). 대학원 학업에 대해 출신 대학 지역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통제변수 효과를 살펴보면, 전업 학생의 경우 스스로 연구자의 자질이 있다고 믿는 정도가 비전업 학생보다 2.8($\exp=1.03$)배 높았다. 석사과정 학생은 박사과정 학생보다 과제 제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기혼인 학생이 미혼인 학생보다 수업 이해가 어렵다고 응답하였다.

[표 4-7] 대학원 학업에 대한 로짓분석 결과

	수업내용 이해 어려움	발표와 토론에서 어려움	과제제출에서 어려움	학점을 얻는데 어려움	스스로 연구자로서 자질이 있다고 믿음
지방대 출신 (ref. 서울권 대학 출신)	1.647	1.705	0.815	0.915	1.349
부모의 대학원 졸업 (ref. 부모의 대학원 미이수)	0.972	1.130	1.507	1.656	1.326
노동자 계층 (ref. 중산층)	0.897	1.401	1.219	0.899	1.010
전업 학생 (ref. 비전업 학생)	1.410	1.625	1.289	2.364	2.796*
박사과정 (cf. 석사과정)	0.942	0.685	0.469*	0.549	1.565
여성(ref. 남성)	1.296	1.169	1.509	1.511	0.823
나이	0.973	1.002	1.002	1.077	1.020
미혼 (ref. 기혼)	0.376*	0.758	0.548	1.037	1.712
N	197	197	197	197	197
Prob > χ^2	0.331	0.331	0.249	0.602	0.268

* $p < .05$, ** $p < .01$, *** $p < .001$

6) 진로

마지막으로 대학원 졸업 후, 진로 준비에 대한 로짓분석 결과는 [표 4-8]이다. 먼저 진로 준비에 대해 출신 대학 지역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통제변수의 효과를 살펴보면 논문 출판에 대해 학위과정에 따른 유일하게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박사과정 학생이 석사과정생보다 논문 출판을 위해 노력하는 정도가 2.97(exp=1.96)배 높다고 응답하였다.

[표 4-8] 진로에 대한 로짓분석 결과

	네트워크에 참여	논문출판을 위해 노력함	다양한 경험을 하고자 함	구체적인 목표가 있음
지방대 출신 (ref. 서울권 대학 출신)	1.063	1.122	1.129	0.982
부모의 대학원 졸업 (ref. 부모의 대학원 미이수)	1.734	1.121	1.513	1.737
노동자 계층 (ref. 중산층)	1.795	1.341	0.938	1.354
전업 학생 (ref. 비전업 학생)	0.393	1.810	0.517	0.971
박사과정 (cf. 석사과정)	0.609	2.967**	0.567	0.839
여성(ref. 남성)	1.236	0.755	1.461	0.989
나이	0.927	0.999	0.913	1.020
미혼 (ref. 기혼)	1.316	0.767	0.487	0.852
N	197	197	197	197
Prob > χ^2	0.037	0.170	0.505	0.841

* $p < .05$, ** $p < .01$, *** $p < .001$

05. 연구 결과 II: 질적 연구

1_대학원이라는 새로운 세계

출신 대학교의 지역에 따라 서울권 대학원에서의 경험이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하기에 앞서 서울권 대학원에 진학한 학생의 공통적인 경험을 살펴보고자 한다. 출신 대학교 지역과 관계없이 서울권 대학원에 재학 중인 연구 참여자들은 대학원에 입학하여 공부하는 것에 대해 대학교 때와 비교하여 학업적으로나 학업 외적으로나 새로움을 많이 느꼈다고 답하였다. 새로운 환경과 학업 속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스트레스 또한 받기도 하였다. 이번 절에서는 대학원생이 되며 경험한 공통적인 경험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1) 새로운 형태의 학업: “너무 확연히 다른 거죠”

대학원에서의 학업은 대학교와 비교하였을 때, 지식을 이해하고 암기하기보다는 지식을 형성해 나간다는 점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다. 연구 참여자들이 처음 대학원에 진학하여 느낀 가장 큰 새로운 점은 새로운 형태의 학업을 접하고 적응에 나가는 것이라고 대답하였으며, 이 대답은 어떤 출신 대학교의 지역과는 관계없이 동일하게 응답하였다.

대학원 공부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하나의, 그래도 좀 많이 좁힌 주제 중에서 좀 하고 싶은 공부를 위주”로 공부하는 것이다(지방5). 대학교에서는 “얕고 넓게” 배우는 것이 특징이라면 대학원에서는 하나의 주제에 대해 깊이 공부하는 것이 특징이다(서울1). 서울1은 대학원에서의 석사와 박사 과정 학업을 아래와 같이 요약하였다.

학부생은 얇고 넓게 탐구해 보는 게 중요했던 것 같은데, 뭔가 석사에서는 그 넓게 탐구했던 관심을 버리고, 하나에 대해 가지고 공부하는 방법을 배우는 게 석사였다면...박사 때는 그 석사 때 배웠던 방법으로 진짜로 파고 들어가는 그런 느낌? 이렇게 각각 다른 것 같아요. (서울1)

대학원에서의 학업이 하나의 주제에 대해 깊게 공부하는 것이기에, 학습법도 달라진다. 대학교에서의 학업은 “책이 알려주는 거를 달달 외워서 써내”는 것(서울2), “암기”, “시험”(서울5)으로 묘사되는 반면, 대학원 학업은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해야 하며(서울4), “비판적 사고”를 필요로 하고(서울4), “열린 사고”(지방3)를 지향한다고 표현되었다. 대학원에서의 학업은 본인이 스스로 주도하고 단순히 지식을 익히는 것을 넘어 적극적인 비판적 사고가 필요한 것이다. 대학원에서의 공부 방식은 다수의 한국 초·중등학교, 대학교에서의 시험 중심의 시스템에서는 비교적 새로운 학습 방식이다. 달라진 학습법 함께 수업에서의 평가 방식도 달라졌다. 대학교의 시험은 주로 암기를 통한 평가되었다면, 대학원에서는 비판적 사고를 통한 글쓰기로 평가가 이루어진다고 설명하였다. 서울2는 달라진 평가 방식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그러니까 학부 때는 과목에 따라서는 시험을 안 보고 그렇게 에세이를 써내는 과목도 있었던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교과목명]이나...[교과목명]이나. 이런 쪽은 그랬는데...그런데 나머지 과목은 정말 다 책 보고 책 내용에 맞는, 시험 문제 나오면 그거 풀고 서술형이라도 답 이렇게 써서 내고 그랬는데...저는 여기 대학원 와서 그런 시험을 봤던 기억이 거의 없어요. 그냥 퀴즈처럼 매시간 봤던 시험도 있지만 대체로 중간 기말 과제가 내가 이렇게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서 보고서를 쓴다거나, 아니면 그걸 그런 프로젝트처럼 발제처럼 키워나가서 나중에 발표를 한다거나, 아니면 진짜 연구처럼 프로포절식으로라도 만들어서 발표를 한다거나...이러다 보니까 너무 확연히 다른 거죠. (서울2)

서울2는 대학원에서 학업이 “확연히” 다르다고 설명하며, 대학교와 대학원에서 학업이 차이가 크다고 설명하였다. 연구 참여자 중 유일하게 서울3은 대학교 때도 대학원 때와 비슷한 방법으로 공부하며 평가받았다고 말하였다. 서울3은 대학교 때도 주로 “10장, 그 이상 쓰는 논문”을 “모든 과목”에 제출하고 제출한 논문을 통해 평가받았으며, 실제 “데이터 분석”을 시행하기도 했다고 설명하였다. 그래서 나름 대학원 진학 시 대학원과 관련한 학업에 대해 “훈련이 꽤 되어 있다고” 믿었으며, 대학원 학업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입학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서울3을 제외한 모든 연구 참여자는 대학교 때 대다수의 과목에서 암기 위주의 시험으로 평가가 이루어졌다고 답하였다.

전반적으로 연구 참여자들은 대학원을 진학하며 달라진 학업 범위와 학습법, 평가 방식을 접했다. 각자의 방식으로 대학원 공부의 핵심을 설명하기도 하였다. 서울2는 대학원 공부의 핵심을 “내가 관심 있는 주제를 만들어야 되고, 그걸 바탕으로 내가 이 대학원이 기대하는 학술적인 언어 소통의 방식에 끼워 맞춰서 서론, 연구 방법, 기대하는 바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으며, 서울4는 “저만의 세계를 구축”하는 것, “비판적인 사고”를 하는 것을 대학원 학업에서의 중요한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대학원 공부는 정답이 없고, 앉아만 있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고 묘사되기도 했으며(지방3), 지방5는 대학교 때 읽어보지 않았던 원서를 읽는 것이 가장 큰 다른 점이라고 설명했다. 지방8, 서울5는 작성해 보지 않았던 논문을 작성해야 하는 것이 가장 큰 새로운 점이라고 설명했다.

2) 대학원생으로서의 정신적 스트레스: “너무 힘들었던 기억”

서울권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두 번째 공통점으로는 높은 스트레스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새로운 학업과 환경에 적응하며 높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응답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이 받는 스트레스의 세부적인 요소는 차이가 있었지만, 대체로 대학원에서의 새로운 학업 방식과 늘어난 업무시간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대학원에서의 학업과 관련한 스트레스를 서울5는 아래와 같이 설명하였다.

[저는] 좀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게 좀 부족한 사람이고 좀 수용적인 사람이라서...그래서 원가 계속 읽고, 읽은 것에 대한 질문을 만들어야 되는 게 굉장히 스트레스였고...저는 질문이 없는 사람이라서...(서울5)

지방3 또한 비슷하게 수업 시간에 질문하는 것이 어려웠다고 말하였다. 대학원 수업 중 교수님이 질문이나 궁금한 것이 있는지 물어보면, 본인 스스로 “궁금한 게 있나?”라는 생각과 질문을 던지는 훈련이 부족해서 적응이 어려웠음을 회상했다. 대학원을 다니며 접한 새로운 교과목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기도 했다. 특히 연구방법론 과목에 대해 어려움을 겪었다고 연구 참여자들은 응답하였다. 지방6의 경우 처음 듣는 통계 수업을 회상하며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라고 말했다. 지방4 또한 “통계가 제일 어려웠”다고 설명하며, “다른 같은 전공 선생님들은 막 후배인데 A+ 받고 막 이랬다는 거 들으니까 괜히 열등감도 생기고 그랬죠. 근데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라고 말했다. 서울3은 학부 때와 다른 전공으로 대학원을 진학함에, 전공이 바뀌

며 전공에 대해서 “기초가 없다”는 생각에 스트레스를 받았다.

*a부터 z까지 다 모르는 것 같은 거예요. 난 아직 [대학원 전공]에 대한 기초가 없는데
뭔가 막 여기에서 얘기를 계속하고 있으니깐...이걸 채울 시간도 없고. 여기서 애매하게
하고 있으니깐. 사실 그건 지금도 그럴 텐데...(서울3)*

서울3은 기초가 부족하며, 기초를 채워야 한다는 생각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토로하였다. 서울권 대학원생은 새로운 수업 참여 방식, 이전의 부족한 학업으로 새로운 대학원 학업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으로 스트레스를 받았다.

서울권 대학원생들은 질적으로 다른 학업에 대한 적응뿐 아니라 늘어난 학업량과 그 외의 대학원생으로의 프로젝트로 인한 증가 또한 주요한 스트레스 요인 중 하나라고 언급하였다. 지방7의 경우는 “많은 학업” 속에서 계속 “야근”을 해야만 했다. 그때의 심정을 “제가 공부를 하면서 이런 걸 느껴본 적이 없는데 막 이렇게 내가 막 이렇게 뭔가를 향해서 이렇게 쫓아가는 기분”이었다고 묘사했다. 또한 대학원생으로의 학업 뿐 아니라 관련한 프로젝트 업무를 가증시켰다. 지방6은 대학원 공부를 시작하며 “프로젝트와 학업을 같이 하니깐 더 힘들었던 것” 같다며 대학원 진학 후 스트레스로 “10kg이 빠졌”다고 말하였다. 서울6 공부나 프로젝트의 절대적인 양보다도 24시간 끊임없이 계속하여 업무가 이어지는 것이 스트레스라고 하였다.

*적응이 안 됐던 부분이 공부가 아니고 일이 너무 많은데...이 많은 게 절대적으로 양 때문에
적응이 안 되는 게 아니고 퇴근 시간이 없는 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삶과 이 일의 삶이 분리되지 않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서 한참 정말 적응기를 겪다가 이제는
자체 퇴근 시간을 정해버리고 그 이후에도 이제 기분 좋으면 연락받아주긴 하는데 잘
안 보려고 노력을 하고, 좀 이제 내 삶의 범위를 확실하게 정해가는 중이에요(서울6).*

서울6은 “퇴근 시간이 없는” 대학원의 삶에서 “내 삶의 범위를 확실하게”하기 위해 퇴근 시간이 지나면 답하지 않는 방법을 택했다.

대학원생은 새로운 학업적 환경에서 적응하며, 학업과 업무 증가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았다. 그 외에도 연구와 관련하여 통제할 수 없는 어려움, 도움을 청할 곳이 적어 “각개 전투하는” 상황(서울4), 다른 학우들보다 상대적으로 뒤떨어지는 것 같은 비교 의식(서울3)으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였다. 서울권 대학원에서 학업 중인 대학원생

의 학업과 업무로의 스트레스가 상당하다.

2_지방대학 출신 학생의 서울권 대학원 경험

출신 대학교의 지역에 따라 서울권 대학원에서의 경험을 비교하기에 앞서, 출신 대학교 지역에 상관없이 서울권 대학원생이 겪은 경험을 살펴보았다. 이번 절에서는 출신 대학교 지역에 따라 어떤 경험을 하는지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지방대학교에서 공부한 학생들이 서울권 대학원을 진학할 때의 경험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서울권 대학 출신 학생이 서울권 대학원에서 겪는 경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각 대학원에서의 경험은 대학원 진학 준비, 대학원에서의 학업과 생활, 대학원을 마치고 진로 준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1) 대학원 진학에서 직접적인 인적자원 활용 부족

지방에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서울권 대학원을 위해 상경한 학생들은 진학할 때 비교적 대학원에 관한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대학원 진학을 준비하고 진학했다. 특히 서울권 학생들이 비교적 용이하게 재학 중이던 대학의 교수나 학부 선배, 교내의 자원을 통해 진학 정보를 얻고 대학원 진학을 준비하였지만,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원 교수나 선배를 접촉하기 위해 남다른 노력을 해야 했다. 지방1은 연구 참여자 중 진학 정보를 얻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한 연구 참여자이다. 현재 진학한 대학원 연구실의 워크숍이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 시기에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것을 학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되어, 대학원 진학 전부터 온라인으로 워크숍에 참여하였다. 온라인으로 참여하며 해당 연구실의 학생들에게 개인적으로 채팅을 통해 네트워크를 쌓고 정보를 얻고자 하였다.

[실시간 온라인 강의 워크숍 중에] 개인적으로 DM 보내기를 할 수 있잖아요. 메시지를. 그래서 채팅창에 제가 이제 소개 글을 적어서 “뭘 안녕하세요. 저는 [연구 참여자 이름]이고 지금 어떤 걸 공부하고 있는데 여기 석사를 희망하고 있고, 근데 제가 어떤 정보들이 너무 없고,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좀 정보를 좀 공유받고 도움을 받고 싶다”해서 “혹시 괜찮으시면 여기 번호로 연락 주세요” 이렇게 적어서 거기 선생님들께 다 보낸거예요.(지방1).

지방1은 온라인 워크숍 개인 채팅을 통해서 알게 된 학과 대학원생에게 어떻게 대학원 입시를 준비해야 하는지를 묻고 관련한 정보를 습득하였다. 지방5 또한 대학원 지원할 때 직접적인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해당 온라인으로 찾았다. 온라인 검색을 통해 관련 블로그를 알게 되었다. 해당 블로거에게 정보를 얻기 위해 “댓글로 뭐가 뭐... 물어봐서...이거 야간으로 다닐 수 있는 거 맞냐. 뭐 이런 식으로....”라며 본인이 취한 방식을 설명하였다. 또한 블로그를 통해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원 연구실의] 교수님 저서 위주”로 공부하라는 조언을 들었다고 하였다.

지방의 대학교에 재학함에도 주변의 도움으로 진학을 원하는 서울권 대학원의 잠정적인 지도교수와 연락을 하기도 하였다. 지방4의 경우 먼저 대학원을 다녔던 경험이 있는 지인을 통해 지도교수에게 미리 연락해 보는 것이 좋다는 것을 알았다. 지도교수의 홈페이지를 통해 연구 분야와 지도교수에 대해 파악하였으며, 이메일을 통해 대학원 예비 지도교수와 접촉하였지만 직접 만나지는 않았다. 지방8은 학부 대학교의 교수가 현 대학원 지도교수에게 연결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어, 현 지도교수의 조교를 통해 입시와 관련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그럼에도 입시 전까지 입시 결과가 어떨지에 대해서 파악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입시에 참여하였다고 하였다. 정보를 얻기에 장애가 되는 거리상의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그냥 문제 시험지 받기도 전에 사실 어느 정도 나올지 예감이 되는데 [대학원 입시 시험]은 뭔가 내가 잘 풀었는지도 잘 모르겠고...교수님들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계신지 교수님들의 강의를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정말 분위기 파악을 하기가 어려웠고...또 다양한 뭔가 행사에 지방이니까 가기가 되게 쉽지 않았어요. 학회 같은 것도 [입학 연도]에 제가 석사 입학했는데 [입학 전년도]년에 학회를 갔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한 번 딱 갔는데...그런 행사들이 만약에 제가 서울에 살았으면 자주 뭔가 학회라든지 주변 워크숍이라든지 열리는 컨퍼런스는 아마 좀 다녔을 텐데. 그런 걸 마음먹기가 되게 지방이면 쉽지 않아서 그런 게 좀 정보 얻기가 불리했고. 또 다 그냥 제일 어려웠던 게 그냥 다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고 낯설어서(지방8)

지방2는 유일하게 지방 대학교 출신이면서 대학원 진학 시 잠정적인 지도교수를 직접 연락하고, 대면한 경험 있다. 지방2는 박사과정 입학 전 직장에서 대학원 전공과 관련하여 일하던 중 현 지도교수를 만날 기회가 있었으며, 입학 전에 연락을 취하여 입학하고자 하는 의사를 밝혔다. 또한 지방2는 석사과정의 선배가 현 대학원에 재학하고

있어 대학원 입시 정보나 연구실 정보를 얻는 것이 용이했다고 응답하였다. 지방3 또한 학부 지도교수의 직접적인 도움이 대학원 입시에 도움이 되었으며 이 상황에 대해 “운이 좋게 교수님을 잘 만난 케이스”로 설명하였다. 지방3의 학과 내에 “대학원 간 사람이 없는”, “로드맵이 하나도 없는” 상황으로 대학원 진학 준비 상황을 설명하였다. 특히 현재 재학 중인 대학원은 학부 교수의 출신 대학원이기도 하기에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지도교수를 정할 때 “주제와 잘 맞아야” 한다든지, 예비 지도교수의 “논문의 읽어보”아야 한다는 것도 학부 지도교수를 통해 알게 되었다. 지방에서 대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은 재학하던 대학교 교수의 도움을 받지 않은 것은 아니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원의 교수와 연결되어 잠정적인 대학원 지도교수의 대면 만남으로 이어지기보다는, 대학원 입시 대비나, 입시에서 필요한 경력과 공부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즉,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도움, 대학원과 관련된 도움을 주지 못했”(지방1)지만, 관련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기회를 얻은 것이다. 대학교 선배 중 대학원 진학자가 거의 없고 인적 네트워크 활용에도 제한이 있었기에 준비하던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만나기 위해서는 온라인과 활용하여 남다른 노력을 해야만 했다.

2) 서울 생활에 적응하기

지방대학을 졸업한 자들은 서울권 대학원에 와서 생활적인 면에서 어려움을 겪는다. 서울의 생활이 처음이고 어색하기 때문이다. 생활적인 부분에서 지방1은 “서울 지리를 잘 모르는데. 그래서 그냥 사람들이 얘기할 때 보통 어떤 서울에 어떤 지역에 어디에 뭐가 유명하고 이런 것들 잘 알잖아요. 여기서 여기 가는 거는 가깝네, 뭐 이런 것도 저는 아직 파악이 안 됐으니까 살짝 생소한 부분들”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지방4 또한 서울에 대해 대화할 때 아는 게 없어서 “그런 대화에” 잘 끼지 못했다고 말했지만, 이에 대해서 크게 상관하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반면 지방3은 “사람 많은 곳이 힘들”기에 적응하는 것이 힘들었다.

서울에 올라왔는데 서울에 적응을 못하겠는 거예요. 진짜 서울에 적응을 못하겠어서. 그 사람들이 막 많은 데 가면 안 그래도 이제 두통이 있었는데 두통이 더 심해진거나. 좀 그런 게 심각했어요. 한 한 6개월? 1년? 1년은 진짜 힘들었고...(지방3)

지방에서 서울에 온 것에 대해 대화에 못 끼거나 어색한 부분이라고 작게 여기는 경우가 있지만 서울에 올라와서 적응이 힘들었던 연구 참여자 또한 있었다.

이러한 정서적인 힘듦은 중요한 사건을 통해 극대화 되기도 하고 주변인을 통해 치유 되기도 하였다. 지방6은 서울에 이사하면서 다친 것이 마음을 힘들고 주요한 사건이었다고 말했다. 그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당시에는 “여기 안 오고 그냥 학교에 근무했으면 [다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음을 회상했다. 이는 지방6이 “전시회”를 좋아하고, 서울 외출하는 것에 대한 기대로 대학원에 왔는데, 다치면서 외출 하기가 힘들어서 어려움을 겪었다. 지방8 또한 처음 서울권 대학원에 다니면서 정서적으로 힘든 일을 겪기도 했다. 대학원 입학 때를 회상하며 “이제 시작을 딱 해서 그런지 뭔가 아는 것도 별로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하며, 정서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지도교수님께 정서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극복할 수 있었다고 설명하였다.

지방에서 서울에 대학원을 위해 상경한 연구 참여자들은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그 어려움을 주변인을 통해 극복하기도 하였다.

3) 아쉬움이 남는 대학교 시절

지방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권 대학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서울에서의 대학원 생활에 적응하며, 대학교 시절의 경험과 대학원에서의 경험을 비교하기도 하였다. 지방4는 대학원 진학 때 재학하던 대학의 교수님께 미리 통계에 관해 공부하고 가면 대학원에서의 학업이 수월할 것이라는 조언을 듣고 통계를 미리 공부하고 입학하였음에도 대학원에서 목표한 성적을 받지 못해 마음고생했다. 대학교 때 항상 우수한 성적을 받고 수석으로 졸업하였기에 학업에서의 어려움은 낯선 것이기도 하였다. 그리고 대학원 성적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고민하였다.

“서울로 학교를 왔으면 통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초 지식을 더 빨리 쌓아서 덜 했을까?”
약간 이런 생각도 하고 “지방에서는 열심히 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실제로 이게 내가 이
서울에서 학교 다니는 친구들이랑 비교해 보면 그것도 사실 열심히는 아니었을 텐데”라는
생각도...(지방4)

서울권 대학교 출신 학생의 학업성과에 대해 비교한 것은 지방1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지방1은 대학교 시절 “아침 7시 반에 도서관에 가서, 밤 11:45분에 기숙사에” 오는 “모범적인 학생”이었다. 특히 대학교 때는 영어를 잘해 영어는 “자존감을 올려주

는” 과목이자 “칭찬”을 받는 과목이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학원에 입학 후에는 영어로 하는 수업에서 주눅이 들기 일상이었다. “제가 아무리 지방에서 영어를 잘한다고 해도 거기[지방]는 유학 다녀온 사람들도 많이 없었고, 제가 영어를 더 개선할 수 있는 방법도 많이 없었어요”라고 말하였다. 그래서 나중에는 “점점 내가 하는 영어는 영어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했고. 그냥 얘기하는...그냥 하는 영어랑 수업에서 논리적인 말하기로서 하는 영어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걸 그때 또 깨달았고...그런데 내가 그 연습이 안 돼 있구나를 느꼈”다고 표현했다. 그리고 주위 학우들에 대해 “학부생 때부터 다 항상 엘리트 코스만 밟으셨단 분”이라고 표현하며, 대학원 생활에서 풀이 죽어 있음을 말했다. 지방7은 현재 다니고 있는 대학원의 학부 재학생들의 학업량을 보며, “그만큼 어떤 제 안에 비어 있는 학업의 어떤 부분들이 많겠다”고 생각했다.

학업적 부분뿐 아니라 지방에서 대학 생활을 하며 다양한 경험을 하지 못한 것에 아쉬움을 드러낸 연구 참여자도 있었다. 지방에서 교육대학을 졸업하고 교사로 근무 중인 지방5는 본인의 대학교 시절을 회상하며 “우물 안 개구리” 같았다고 설명했다.

서울에 있으면 그래도 영어학원이라도 더 많고 주변에 이렇게 대학교도 많다 보니까 교류도 많이 있을 것 같고. 어쨌든 근데 제가 다니는 학교는 주변에 이렇게 큰 [종합대학이] 있긴 했는데...그래도 그게 없었는데...[서울에는] 주변에 이렇게 학원가를 있잖아요. [출신 대학 주변에는] 이렇게 상권이 엄청 발달 안 했거든요.(...)근데 여기 서울에서 만약에 딱 왔다면은 지하철이 딱 있잖아요. 그러면은 자기가 원하는 데 가서 “내가 만약 토익 공부하고 싶다” 이러면은 인터넷으로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학원 가서 들을 수 있고 듣는 것뿐 아니라...이렇게 주변에 나랑 비슷한 나랑 비슷한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고 동료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게 되게 엄청 큰 차이가 있겠다...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딱 제 나이 때 20살, 21살, 22살, 23살에 있는 또래는 딱 거기 안에 있는 그 환경밖에 없었거든요.(지방5)

“우물 안 개구리” 같았던 대학교 시절과 서울에서 대학원을 다니며 환경의 차이가 크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한 아쉬움은 다른 면담 참여자들 사이에서도 나타났다. 지방1은 지방의 부족한 인프라로 서울에 자주 갔었다.

저도 이제 수업 마치고, 금요일에 있는 수업이 일찍 끝나니까, KTX 타고 서울이나 부산 쪽으로 가서 [전공명]은 그쪽이 아니면 사실 다른 지방에는 뭐 해봐야 대우? 이쪽은 [전공

명] 교육 조금 있고 근데 큰 어떤 것들이 없잖아요. 행사가. 그래서 항상 혼자서 찾아다녔었고. 사비로 다녔었고. 근데 계속 저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었어요(지방1).

지방1을 지방에 부족한 학회나 행사 참여를 위해 서울이나 부산으로 가는 수고를 감수하고서라도 다양한 활동을 하였다.

지방3도 토론 동아리를 운영하고자 하였지만 “희망자가 많지도 않아” 소속 대학교 학생들이 아닌, 타학교 학생들과 함께 토론 동아리에 운영하였다. 지방8은 서울에서 대학원을 재학하며 “세계를 확장 시킬 수 있었던 기회”라고 표현했다. 사회적 이슈에 대해 대학교 시절에는 “조용” 했고, “큰 사건으로 와닿지 않았는데” 대학원에서는 주위 대학원 동료들이 이러한 문제에 관심을 가지니 더욱 관심을 가질 수 있었다고 표현했다.

서울권 대학원에 진학한 지방 대학교 출신의 학생들은 대학원 재학하며 학업적으로, 경험적으로 부족함을 느낌과 동시에 출신 대학교에서의 학업과 경험을 아쉬움을 표했다. 대학교의 시절을 “우물 안 개구리”로 묘사하는 반면 서울에서의 생활을 “세계를 확장”하는 것으로 묘사하기도 했다.

4) 진로에 대한 걱정

다수의 대학원생은 정해지진 않은 진로에 대해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되었다. 하지만 지방에서 대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은 진로에 대한 불안감 중 출신 대학교가 악영향을 미칠 것에 대해 걱정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이러한 경향은 경력이 적거나 없는 학생들에게 더 크게 나타났다. 지방3은 진로에 대해서 이야기 할 때 “지방대 출신의 여성”이라는 점이 불리한 조건이라는 조언일 것이라는 조언을 들었으며, 지방4는 연구소에 일하는 분들이 “학부도 다 약간 [서울권 명문대학] 출신이다 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다고 말했다. 지방7 또한 졸업 후 진로에서 “그냥 쪽 서울 출신이었던 사람보다 저는 학부가 지방이었다가 [서울권 대학원]에 와서 뭔가 나중에 채용할 때에도 비교가” 될 것 같다는 걱정이 든다고 말했다.

출신 대학교로 인해 진로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은 주위에서 간접적인 경험의 결과이기도 했다. 지방3의 경우 처음 “지방대 출신”이 진로에서 불리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설마 그렇겠어?”라는 마음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데이터가 점점 쌓이”면서 “받아들인 것 같”다고 하였다. 지방4는 세미나에서 만나

박사 연구원에게 “지방대 출신”의 연구원이 많으니 물어보았고 그때 “블라인드 채용을 통해서 들어오신 분이 있다”는 대답을 들었다.

이제 다시 블라인드 채용이 없어지는 추세라고 들어서 그럼 나에게 아주 공정한 아주 똑같은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그런 일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 평생을 따라다니지 않을까요? 저의 학부 출신이?(지방4)

이러한 조건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출신 대학교가 지방이라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학벌 외 다른 부분을 강화해야 할 것 같은 압박을 받으며 강화하고자 하였다. 지방3은 처음에는 석사과정을 마치고 박사과정 국내에 진학할 것을 고려하였다. 하지만 지금은 유학이 학부 대학교에 대한 보완이 될 것을 생각하여 유학에 대해서도 고려 중이다. 지방8은 채용에서 지방 대학교 출신이라는 것이 취업 시장에서 비교가 될 것을 걱정하며 “실적을 그만큼 더 쌓아야 이제 경쟁이 되는 건가 하는 그런 압박감이 막연하게 있”다고 말하였다. 지방4는 출신 대학교가 주는 불리한 점을 생각하며 혼자 수능을 다시 치는 상상을 해보았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내려”놓았다. 대신 현재 명망 높은 지도교수 밑에서 장기간 수학하는 것이 지방대학 출신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했다. 대학원을 졸업하더라도 출신 대학교를 진로에서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 지방8은 “메꿔야 하는 불안감”을 느끼기도 하며 지방3은 회의감을 가지기도 하였다.

지방대를 나온 게 큰 문제인가? 너무 나한테 너무 큰 문제였나?’ 라는 생각은 한 번씩 하죠. 배우는 커리큘럼 다 비슷한데.(지방3)

또한 지방3은 지방대 출신으로 학계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근데 TA 막 들어갔다가 “이런 얘기 있었어.” 막 듣다 보면 그들이[서울권 명문대 재학생] 되게 권력 집단이라서 할 수 있는 말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면 되게 커리큘럼이 비슷하고 오히려 생산적인 건 이쪽에서 더 [지방 대학교]에서 더 많이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지방3)

현 대학원 소속의 학부생들을 “권력 집단”으로 보고 오히려 생산적인 토론은 지방대학 재학 시절에서 가능했던 것이 아닌가로 생각한 것이다. 그럼에도 서울의 대학원을

선호하는 현상을 보며 “결국 타이틀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였다.

지방 대학교 출신의 서울권의 대학원생은 출신 대학교가 진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전반적으로 걱정하였다. 이러한 걱정은 대학원 생활을 하며 주위 사람들을 통해 더욱 강화되어 갔다. 연구 참여자들은 출신 대학교가 진로에 미칠 영향에 대비하여, 유학을 고려하거나, 논문을 더 많이 출판하는 것과 같은 보완책을 마련하기는 했지만, 회의감을 가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3_서울권 대학 출신 학생의 서울권 대학원 경험

다음으로는 서울권에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서울권 대학원에 입학한 학생의 경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한다. 앞의 지방대를 졸업한 학생과 동일하게 진학에서의 경험, 대학원에서의 경험, 진로 준비에서의 경험으로 나누어 보았다.

1) 풍부한 인적자원 활용을 통한 정보 수집

서울권 대학교 출신으로 서울권 대학원에 입학한 학생은 입학 당시 비교적 다양한 인적자원을 활용해 진학한 전공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진학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서울권에서 대학을 졸업한 학생은 입학 전 대학원의 예비 지도교수에게 미리 이메일을 통해 연락하거나 직접 만나기도 했다. 서울1의 경우 대학교 입학 때부터 대학원 진학에 관심이 있었으며, 학부 재학 중 관련 전공 교수님들께 대학원 정보에 대해 적극적으로 물어보았다. 학부 지도교수는 비교적 장학 지원이 많은 현재 재학 중인 대학원을 추천하며, 현재 지도교수의 연구 주제가 잘 맞을 것 같다며, 대학원 지도교수를 추천해 주기도 하였다. 서울1은 추천받은 현 지도교수에게 대학원 입시 약 2개월 전에 연락하여 면담을 가졌다. 면담을 가진 후, 서울1에게 입학 전까지 두 달여 동안 연구실의 연구에 참관하도록 하고 관련 주제의 특강에도 참가하도록 하였다. 입시 전 잠정적인 지도교수에게 연락한다고 하여서 합격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서울1은 입시 면접 후 떨어졌을 걱정에 “시험치고, 면접 보고, 돌아가는 길에 평평 울었”다고 말하였다. 그럼에도 서울1은 대학원을 진학할 때 대학원 예비 지도교수와 만남을 통해 연구실의 정보와 분위기와 같은 구체적인 정보를 가지고 진학을 준비할 수 있었다.

서울7 또한 사전에 지도교수를 직접 대면해 만나고 대학원을 진학하였다. 서울7은 대학교 재학 중 학부 교수의 프로젝트를 돕다가 현재 대학원 지도교수를 알게 되었다. 서울7이 참여한 프로젝트는 학부 교수와 현 대학원 지도교수가 함께하는 프로젝트였다. 그리고 대학교 진학할 때 서울7은 학부 교수의 도움으로 현 대학원 지도교수와 사전 면담했다.

서울권 대학 출신의 연구 참여자 중 동 대학원에 진학한 경우는 특히 대학원 진학 정보에 접근이 유리했다. 서울2, 서울6, 서울8은 학부와 대학원이 동일한 학교로 진학하였다. 서울2의 경우 학교 선배를 통해서 진로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얻었을 뿐 아니라, 면접에서 어떤 답변을 해야지 면접에서 유리한지에 대한 비교적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일단 면접 들어갔을 때 교수님들이 어떤 성향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은 좀 미리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어떤 교수님은 조금 당황스러운 질문들을 할 수도 있다. 그리고 매번 묻는 질문에는 “너 여기 졸업하고 석사 졸업하고 뭐 할 거냐”고. 이렇게 면접에서 나올 만한 질문들을 일단 듣고 준비를 해 갈 수 있어서 좋았고. 두 번째로는 영어로 인터뷰를 할 수도 있다. 그러면 너가 영어로 지원 동기나 아니면 자기소개 정도는 이렇게 유창하게 할 수 있을 만큼 연습해서 들어가야 된다.(서울2)

서울6은 동 대학원이지만 다른 학과로 대학원을 진학하였다. 다른 학과임에도 인턴 제도를 활용하여 미리 대학원 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이점이 있었다. 현재 연구 주제에 관심을 가진 것도 학부 때 현재 재학 중인 대학원의 연구실에서 진행하는 수업 참여를 통해서였다. 4학년 때 대학원 진학을 결정하고 나서는 인턴 제도를 통해서 미리 연구실 생활을 경험하였다. 서울6은 “한 학기 동안 랩실 인턴을 하면서 좀 겹사겹사 정보도 듣고 어떻게 굴러가나 무슨 프로젝트 있나 이런 것도 봤던 것 같아요.”라고 설명하였다. 인턴으로 활동하며 “제가 제일 중심적으로 본 게 이분에게 지도받을 때 2년을 버틸 수 있을까를 제일 집중해서” 볼 수 있었다고 답하였다. 수업을 들으며 남는 시간에 이동 시간 없이 남는 시간 쪼개서 인턴을 할 수” 있었던 것이 대학원 입학에서 큰 이득이었다고도 설명하였다.

지도교수와 직접 만나지는 않더라도 간접적으로 지도교수에 대한 정보를 얻기도 하였다. 서울4의 경우 학부 대학교의 교수님께 추천서를 부탁드리다가 학부 교수와 지원하는 대학원의 교수가 지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대학원 지도교수 성향에 대한 정보

를 얻었다. 예를 들면 “바람 들어서” 대학원 진학하려는 학생을 싫어하고, “이런 거[화려한 액세서리], 귀걸이 다 빼고 가”라는 조언을 들었다고 했다.

지도교수나 선배의 연결이 힘든 경우는 주위 인맥을 활용하여서 진학 희망 대학원의 학과에 재학 중인 선배를 직접 만나 조언을 듣기도 하였다. 서울3과 5는 “건너 건너 아는” 지인을 통해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원 연구실에 재학 중인 선배를 만나 미리 대학원 지원과 생활에 대해서 조언을 듣고, 입시 예상 문제 정보를 얻기도 하였다.

서울권의 대학교를 졸업한 연구 참여자는 재학했던 대학교의 교수, 선배와 같은 인적 자원을 통해 입시에 관한 정보와 입학 후의 생활에 대한 조언을 들었다. 주변의 인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다. 물론 서울권 대학교 출신이라고 하여 동일한 정보를 가진 것은 아니었다. 서울권 대학원 출신 대학원생 사이에서도 동 대학원으로 가는지 아닌지에 따라 정보의 질에 대해 차이가 있었지만, 서울권 대학원에 재학하며 대학원 예비 지도교수와 직접 대면하거나, 진학하고자 하는 학과의 선배를 직접 만나 는 것이 비교적 용이하였다.

2) 대학교에서의 경험을 활용하여 대학원에 적응하기

“사람을 서울로, 말은 제주로”라는 관용어구가 있다. 새로운 도전이나 문화생활을 누리기에는 서울이 적합하다는 말이다. 이러한 현상은 대학 입시생들에게도 적용되는데, 많은 고등학생은 소위 “인 서울”대학을 목표로 공부한다. 인 서울 대학을 목표로 하는 주요 이유는 SKY와 같은 명문대학이 서울에 위치하기 때문임과 동시에, 서울권의 대학이 밀집되어 있으니 대학 생활을 하며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며 문화생활의 누리고자 하는 지방 출신 학생의 열망이기도 하다. 서울권 대학교를 졸업한 학생은 실제로 다양한 경험을 하는지, 그리고 다양한 경험이 대학원 진학과 생활에도 연관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대학원을 진학하고 생활하는데 서울권 대학교를 졸업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먼저 서울권 대학 내에서 다양한 자원이 제공되며 연구 참여자가 대학원에 진학을 결정할 때 도움을 얻었다. 서울2, 서울3은 학교 내의 경력개발 센터의 상담을 통해 대학원 진학 진로로 도움을 받았다. 서울2는 대학교 4학년 때 교내 경력개발센터에서 상담을 통해 현재 전공이 적성에 맞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게 실제로 심리검사로 이렇게 직종이나 제 성향이나 이런 걸 했을 때 그런 게 나와요(...) 그래서 그중에 당장 해볼 수 있는 게 뭘까 해보자 이제 상담사랑 얘기를 해봐서 제가 [전공관련 공부]를 그때 좀 해봤거든요.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으로 내가 가도 맞겠다 생각에 그때 들어서 결정을 하고 준비했습니다.(서울2)

서울3는 교내 경력개발센터에서 관심사와 맞는 교외 활동을 추천받아서 참여하였으며, 해당 교외 활동을 하며 대학원 진학을 결정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상담에 대해 “기적적이라고 생각”한다며, “대학교 2학년 때 상담을 학교에서 그냥 받게 됐는데... 약간 그때도 진로상담이었는데”라며 설명하였다. 상담을 통해 동아리 활동을 하게 되었고 이 활동이 추후 대학원 진학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답하였다.

대학원 진학뿐 아니라 대학원 학업에서 발표와 글쓰기와 관련하여서도 또한 대학교 생활 중에 경험이 영향을 주었다고 설명하였다. 특히 서울4는 서울권 대학교 생활을 회상하며 “제 동네[서울 외 지역]에 있는 어떤 친구들이나 그런 사고방식이란 다들 너무 다르고, 이분[서울권 대학생]들이 방학을 어떻게 보내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살고 이런 게 너무 달랐”다고 설명하였다. 덧붙여 “학교를 서울에서 다녔으니까 좀 세상이 넓은 걸 알”고 진로에 대해서 대부분이 준비하는 교사 임용고시를 치는 것뿐 아니라 대학교 3학년 때 교환학생을 다녀왔다고 응답하였다. 교환학생 생활 중에 학문적 글쓰기에 대해 배울 수 있었으며, 이 글쓰기는 현재 대학원에 하는 학업에서도 활용 중이다.

한국 대학은 다 에세이를 쓴다고 해도 그렇게 아카데믹하게 자기 아규먼트(argument)를 막 쓰기보다는 이제 배웠던 내용을 이제 조금 서술하는 형식으로 많이 썼었거든요. 제가 배운 거는 근데 거기는 제가 학부 과정으로 갔지만 다 아카데믹한 그런 자기 띠제스(thesis)를 정리해서 쓰는 라이팅을 계속 요구하시고 실제로 파이널도 거의 지금 대학원생들이 내는 기말 페이퍼 정도 수준으로 그 형식을 요구를 했었거든요.(서울4)

서울4은 학문적 글쓰기를 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교환학생을 통해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을 배웠다. 또한 “학부 과정으로 갔지만”라는 말에서 볼 수 있듯, 학부 과정 그 이상의 경험을 교환학생을 통해 하였으며, 지금 사용하는 연구에서 사용하는 연구방법론 또한 “10년 전” 학부 수업에서 배웠다고 응답하였다.

서울1 또한 대학교 때 모든 수업이 강의와 함께 토론이 이루어졌다고 말하며, 대학원의 수업 방식이 익숙했으며 참여에 어려움이 없었다고 말하였다. 또한 학교 수업에

발표하는 법에 대해 깊게 배울 수 있었던 기회에 대해 설명하였다.

네. 특히 이거는 곧 교수님의 특성이신 것 같은데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교과목명] 교수님이 계세요. (...) 그 [교과목명] 수업에서 발표를 할 때 “손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것부터 세세하게 가르쳐 주시고 마지막 기말 과제로 15분 영상을 찍는 것. 그러니까 이런 거를 수업을 하셨던 교수님이 계셔가지고. 그럴 때 스킬을 좀 많이 배웠죠.(서울1)

서울권에서 대학교를 다닌 연구 참여자들은 비교적 다양한 경험을 통해 대학원을 결정하고 대학원에 진학한 후에도 대학교에서 배웠던 지식을 활용하여 학업에 적응하고 있었다. 진로를 결정할 때도 대학교에서의 경험이 영향을 미쳤으며, 학업적인 면에서도 대학원에 적응할 때 대학교에서 배운 발표, 글쓰기 혹은 프로젝트에서의 경험을 대학원 학업에서 활용하였다.

3) 출신 대학교가 진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고려하지 않음

진로와 관련하여 서울권 지역에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서울권 대학원에 진학한 연구 참여자의 경우, 진로에 대해 불안함을 느끼기는 하지만 출신 대학교로 인해 대학원 졸업 후 진로가 불리할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은 적었다. 서울3은 대학원 전공과 관련한 본인의 짧은 경력이 추후 진로에서 불리할 수 있지 않을까 걱정하면서도, 출신 대학교 때문에 “유리하거나 불리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서울7의 경우에도 출신 대학교를 진로에 적극 활용하고자 하였다. 출신 대학교와 비슷한 성격의 대학교에서 일하는 것이 진로에 유리할 것이라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서울1의 경우 출신 대학교로 인해 현재까지 “불이익”을 받은 적은 없지만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하였다. 불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네트워크” 쌓는 것이 출신 대학교와 관련이 있는데, 동 대학교 출신이 아니면 네트워크를 쌓는 것에 불리한 점이 있다고 본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 대학원에 있는 것은 추후 “큰 이익”이 될 것이라고 보았다. 잠정적으로 학부 출신 대학교로 인해 받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 것을 예상하였지만, 그것에 대해 크게 걱정하지는 않았다.

반면 서울2는 오히려 학부 출신 대학교로 인해 진로에 대해 걱정을 덜기도 하였다.

불안해질 때 진짜 너무 불안해질 때 가라앉히려려고 저한테 그런 말을 할 것 같아요. [진로가 잘 풀린 동 대학교를 졸업한 선배의 진로를 생각하며].... 그게 이제 네가 갈 길이야라고 갈 수 있는 길이야라고 얘기를 해주면...(서울2)

서울2는 학부 선배들의 진로가 잘 풀리는 것을 보고 진로에 대한 불안감이 생길 때 본인도 선배들처럼 잘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며 자신을 다독이기도 하였다. 전반적으로 서울권 대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출신 대학교가 진로에 미칠 영향력에 대해 크게 걱정하지 않았다. 이들이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불안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출신 대학교 영향력에 대해서는 크게 고려하지 않았다.

06. 결론 및 제언

1_결론

본 연구는 지방대를 졸업하고 서울권 대학원에 진학한 학생의 경험에 관해 연구하였다. 지방대를 졸업하고 서울권 대학원 진학한 학생의 경험이 서울권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권 대학원의 진학하는 경험과 어떻게 다른지를 알기 위해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양적 연구는 서울권 대학원생들의 경험이 출신 대학의 지역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질적 연구는 서울권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권 대학원에 진학한 대학원생과 지방대를 졸업하고 대학원에 진학한 학생의 경험을 비교 분석하였다.

양적 연구 결과, 출신 대학의 지역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인 부분은 진학 준비 시 재학 중이던 대학교 교수의 도움 여부였다. 서울권 대학 출신 학생들은 지방대 출신 학생보다 대학원을 진학과 관련하여 재학 중이던 대학교 교수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받는 경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제적 지원에서 출신 대학의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지방대 출신 학생은 서울권 대학 출신 학생보다 경제적으로 원가족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생계를 위해 학업과 관련 없는 일에도 적게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방대 출신 학생은 대출에 대한 의존이 서울권 출신 대학의 대학원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대학 생활에서 진로 준비와 관련하여서는 출신 대학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질적 연구 결과, 지방대를 졸업한 대학원생은 진학, 대학원 생활, 진로 준비에서 서울권 대학은 졸업한 학생과 차이가 있었다. 우선 두 집단은 대학원의 새로운 학업에 대해서 대학교 때와 다름을 느끼고 새롭게 적응하며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비슷하게 나타났다. 진학에 있어 서울권 대학 출신 학생은 학부 대학의 교수를 통해 예비 지도교수에게 사전 연락을 하거나 만남을 가지는 경우가 많았으며, 또한 지인을 통해 진학하

고자 하는 대학원의 재학생이나 졸업생을 만나 입시에 대한 도움을 받기도 하였다. 반면 지방대학 졸업생은 비교적 제한된 정보에만 접근이 가능했으며, 학부 지도교수로부터도 네트워크의 연결보다는 대학원 진학에 필요한 전반적인 정보를 받는 경향이 있었다. 선배나 지인의 도움 또한 거리상의, 인적 네트워크 부족의 이유로 받기 힘들었다. 대학원 생활에서 지방대 출신 학생은 학업적 어려움과 더불어 생활 적응에서도 어려움을 겪었다. 지방대학 출신 대학원생은 대학원 생활하면서 대학 시절의 경험 부재에 대해 아쉬워했다. 서울의 대학처럼 상권, 교육 환경이 형성되지 않은 대학가에서 생활하며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없었음에 자신을 “우물 안 개구리”로 칭하기도 했으며, 본인의 학업적 능력에 대해 지방에서 상대적으로 우수하였지만, 서울에서 만난 대학원생과 자신을 비교하여 평범하거나 “빈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평가하였다. 서울권 대학 학생들은 자신의 교환학생, 수업에서 글쓰기 발표 연습, 다양한 센터 이용에 대해 대학에서의 경험이 풍부하다고 여겼다. 마지막으로 진로와 관련하여서 지방대 출신 학생은 추후 진로에서도 출신 학부가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에 대해서 걱정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이를 위해 다른 부분으로 보충하고자 하였다. 서울권 대학 출신자 일부에게서도 출신 학부가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을 걱정하는 연구 참여자도 있었으나, 비교적 미비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지방대 졸업생’이라는 특성과 ‘서울권 대학 대학원생’이라는 특성이 교차(Crenshaw, 1989)하며 고등교육에서 어떻게 불평등을 재생산되고 있는지 보여준다. 한국의 연구에서는 어떤 대학은 주요한 사회의 선별 장치로 여겨지고 있으며, 어떤 대학인지에 따라 다른 사회적 자본을 제공한다고 알려져 있다(김종엽, 2003). 본 연구에서는 재학했던 대학교 지역에 따라 대학원 진학을 위한 정보의 질과 인적 네트워크가 달라지며 대학원 진학하는 데 중요하게 작용함이 나타났다. 또한 재학한 대학의 지역에 따라 했던 경험이 달랐는데, 이 경험은 대학원 생활에 적응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서울권 대학원생은 다양한 경험은 서울권 대학의 서울권 대학원 생활에 도움을 주었으나, 지방대를 졸업한 학생은 서울권 출신 학생과 비교하여 다양한 경험이 부족하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었다. 앞선 Hurst et al(2024)의 연구에서 부모의 교육 수준에 따라 자녀의 명문대 대학원 진학 여부가 달라지며, 대학원에서의 경제적 지원 여부, 대학원에서의 지원과 소속감까지 영향을 미침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맥락에서 어떤 지역의 대학을 졸업하였는지가 추후 대학 졸업 후 대학원 생활과 진로에도 불평등을 양산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더욱이 한국에서 대학원 진학하는 학생은 증가하는 추세이다. 대학원을 진학한다는 것은 청년이행기가 지연되어 경제적으로 독립이 늦어짐을 의미하며, 지방에서 상경한 대학원생은 경제적 어려움과 함께 지방대학 졸업생으로서의 어려움이 가중되어 겪고 있다. 대학원 진학 인구가 증가한다는 것은 지방대학을 졸업하고 서울권 대학원을 진학하는 수가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여태까지 주목하지 않았던 지방에서 서울에 서울권 대학원에 진학하는 대학원생에 대해 더욱 연구될 필요가 있다.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고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 양적 연구에서는 진로 준비에서 대학교 교수의 도움을 받는 것과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만 출신 대학 지역에 따라 유의하게 차이가 있었으나 대학원 생활에서 정서적 지지, 관계와 소속감, 학업, 진로 준비 등에 있어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기 때문이다. 질적 연구에서는 출신 대학 지역과는 관계없이 대학원생으로서 경험하는 새로운 학업과 높은 스트레스는 동일하였다. 하지만 대학원 생활을 깊이 살펴보았을 때, 학업에서의 어려움과 진로를 지방대 출신이라는 특성과 연결 지어서 생각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었다. 즉, 양적 연구 결과와 질적 연구 결과는 모순되기보다 상호보완적이라고 볼 수 있다. 대학원생으로서의 어려움과 스트레스는 비슷하지만, 깊이 살펴보면 지방대 출신이라는 것이 대학원에서의 어려움을 더 극대화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지방대학 출신의 대학원생이 서울권 출신의 대학원생보다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여 열등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며, 본 논문을 그렇게 해석한다면 오독한 것이다. 오히려 지방대를 졸업하고 서울권 대학원에 진학한 학생은 대학교 시절 우수한 학업 성취를 보여주었으며, 대학원에서도 적응해 가며 높은 학업 성과를 보여주기도 하였다. 또한 스스로 지방대 출신으로서 본인들이 학계에 기여할 수 있는 바를 찾고 기여하고자 하기도 하였다. 본 연구는 지방대 출신으로 서울권 대학원에서 학업을 이어가는데, 어려움을 보여줌으로써 지방과 서울권 고등교육에서의 내재된 불평등을 드러내고,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하고자 하였다.

2_제언

본 연구에서는 대학원에서 출신 대학 지역에 따라 대학원과 관련한 진학, 학업과 생활, 진로 준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한 정책을

아래와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서울에 소재한 대학원에 진학하는 청년을 위해서는 인적 네트워크 지원이 필요하다. 지방대학을 졸업하고 서울권 대학원에 진학한 학생은 서울에서의 인적 네트워크가 부족하다. 그러므로 인적 네트워크 강화와 관련한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이런 네트워크는 대학교를 진학할 때 많이 드러났는데, 인적 네트워크의 부족으로 대학원 진학 관련 정보를 얻는 것에 제한이 많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방에서 서울권 대학원 진학 희망자들이 인적 네트워크를 넓힐 수 있도록 네트워킹과 관련한 지원이 있다면 도움이 될 것이다. 네트워킹과 관련하여서는 지역을 초월한 동아리 활동 지원, 지방에서 상경한 청년들의 네트워킹 지원 등이 있을 수 있다. 특히 서울에는 고립은둔청년을 지원하는 정책이 있는데(청년몽땅정보통 정책), 지원 청년을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원 후 이들이 더 이상 고립되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인적 네트워크의 구축은 고립된 청년의 지원 정책이 성공적으로 이어갈 수 있게 하는 주춧돌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서울 소재 대학원에 진학한 청년을 위하여 학습지원도 필요하다. 지방대학을 졸업하고 서울권 대학원에 진학한 자들은 정보를 얻는 것에 제한을 느끼기도 하였고, 서울에서 대학을 졸업한 자에 비하여 대학원 졸업 후 진로에 대하여 불리한 조건에 대하여 걱정을 하기도 하였다. 이들을 위하여 학업을 잘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동일 학문 분야에서의 멘토-멘티 제도 혹은 해당 진로 분야의 인사를 초대하여 특강 제공 등을 한다면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경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지방대를 졸업하고 상경한 대학원생은 대출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었다. 아무래도 원가족 집에 거주하며 생활과 관련한 도움을 받기에는 거리상의 어려움이 있고, 일자리를 구하기에도 정보가 제한적이기 때문일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대학 출신 학생들에게 부수적으로 노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면 도움이 될 것이다. 대출과 관련하여서 대학생에게 지원되는 것과 비슷한 낮은 대출 이자를 통한 대출 지원이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외에도 대학원 생활을 위해 상경한 대학원생을 위한 선배들의 멘토링 지원과 같은 정책은 생활과 학업 등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지원이 될 것이다. 넷째, 지방대학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 현재 한국 대학 상황은 서울권에 소위 명문 대학 혹은 연구중심대학이 밀집되어 있으며, 지방대학을 졸업할 시 낙인 효과가 있다. 본 연구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진로 준비에서 지방대학 졸업생의 낙인에 대해 걱정하

였다. 관련하여 가장 시급하게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학벌이나 학력 위주의 사회에서 탈피하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다. 현실적으로 지방대학에의 예산 지원과 특화 전략이 모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지방대학에서 지방의 특색을 반영하여 대학원 전공을 운영할 필요가 있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지방대학 활성화 정책을 보다 세세하고 장기 플랜으로 이루어가야 한다. 또한, 지방대학(원) 학생들의 장학금도 충분히 마련하여 지역의 학생들이 많이 진학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의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도 마련한다면 지방 소멸 문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해당 지역에서 졸업한 학부생도 그 지역의 대학원으로 진학할 가능성을 높여 평생 학습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다섯째, 지방대학의 대학원 운영 확대를 위하여 RISE(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사업 등의 시스템을 대학원 차원에서도 도입하여 실시해 나간다면 청년의 평생학습 기회를 증진할 수 있을 것이다. RISE은 지자체의 대학지원 권한 확대와 규제 완화를 통해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대학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추진하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이 대학원으로도 확대 운영된다면 지역의 핵심 대학(원)으로서의 기능이 강화될 것이고, 학습자의 성공사례가 많이 전파된다면 청년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완화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여섯째, 대기업, 중소기업의 채용 방식 변화를 위해 기업과 정부가 모두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기업에서도 청년 채용을 함에 있어 학력과 학벌로부터 고정관념을 벗어나야 한다. 연구 참여자들이 대학원에 진학하는 큰 이유 중 하나는 취업이 어려워서다. 지방대학을 졸업한 서울권 대학원을 재학생은 취업할 때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느낀다. 청년의 우울과 자살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대학원에 진학하면 성공할 것 같은 신화는 희망고문과 같다. 기업에서 채용 시 블라인드를 실시하여 학력과 학벌로부터 어느 정도 편차가 적어진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당사자들의 입장은 다르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대기업, 중소기업의 채용이 수도권에 거주하는 청년의 쏠림이 일어나지 않게 채용에서도 입시와 같이 지역균형선발 등의 정책을 도입하여 지원한다면 학벌과 학력 위주의 사회로부터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이는 청년의 정신 건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

참고문헌

- 교육부, 2023, 「2023년 교육기본통계 기본 내용」, 교육부.
- 교육인적자원부, 2005, 「대학특성화추진방안」. 교육인적자원부.
- 구양미, 2021, “인구 변화와 도시 쇠퇴의 지역 불균형: 저출산과 지방소멸 문제에 대한 시사점”, 「국토지리학회지」, 제55권, 3호, pp. 301-320, 국토지리학회.
- 권중혁, 2024. 8. 24. ““전세 무서워”... 월세로 간 청년들 ‘이자 부담’ 2배”, 국민일보,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020447586>.
- 권현주, & 주동범, 2024, “대학원생의 대학원 진학동기가 교육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대학소속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자치행정학보」, 제38권, 1호, pp. 181-201, 한국자치행정학회.
- 권현주, & 주동범, 2024, “대학원생의 대학원 진학동기가 교육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대학소속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자치행정학보」, 제38권, 1호, pp. 181-202, 한국자치행정학회.
- 길혜지, 백순근, 양현경, & 신은주, 2018, “4년제 대졸 직장인의 대학원 진학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아시아교육연구」, 제19권, 2호, pp. 453-475, 아시아교육연구학회.
- 김다혜, 함옥경, 서민희, & 박시현, 2021, “대학원생의 자기효능감, 스트레스, 폭력 경험, 경제적 환경, 관계갈등, 건강행위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건간호학회지」, 제35권, 1호, pp. 89-103, 한국보건간호학회.
- 김대형, 김아영, & 강이화, 2007, “중국인 대학원 유학생들의 학업적응 경험에 대한 근거이론적 연구”, 「아시아교육연구」, 제8권, 3호, pp. 159-187, 아시아교육연구학회.
- 김동인, 2023. 11. 15. “청년인구 집중의 핵심 키워드, 20대 여성의 상경”, 시사IN,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541>.
- 김민선, 양지웅, & 연구진, 2016, “이공계 여성 대학원생의 진로선택과 대학원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28권, 1호, pp. 191-216, 한국심리학회.
- 김성아, 김정아, 2024. 「서울시민 식생활 실태 분석과 식생활 정책방향」, 서울연구원.
- 김승정, 2017, “인문사회과학 전공 박사과정생의 학문적 정체성 발달에 관한 연구”, 「교육행정연구」, 제35권, 4호, pp. 317-345, 한국교육행정학회.

- 김승정, 2019, “대학원생과 지도교수의 상호작용과 지도 유형에 관한 연구”, 『교육행정학연구』, 제37권, 3호, pp. 59-82, 한국교육행정학회.
- 김영란, 장혜경, & 이윤석, 2017, “가족계층에 따른 청년자녀세대의 성 인기 이행 및 정책대응 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2018(53), pp. 1-216,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영미, 2016, “계층화된 젊음: 일, 가족형성에서 나타나는 청년기 기회불평등”, 『사회과학논집』, 제47권, 2호, pp. 27-52, 사회과학논집학회.
- 김중엽, 2003, “[특집/계급과 불평등] 한국 사회의 교육 불평등”, 『경제와사회』, 제59권, pp. 55-77, 한국사회과학연구소.
- 김준경, 2005, “대학 졸업생의 지역 간 이동과 노동시장 성과: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 졸업생 간의 비교를 중심으로”, 『제4회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 및 청년패널 심포지엄 자료집』, pp. 1-10, 한국고용정보원.
- 김태선, & 신주연, 2020, “다문화 시대의 상담자 교육: 비판적 의식과 상호교차성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32권, 2호, pp. 1-15, 한국심리학회.
- 김혜나, 김대현, 이태영, & 강이화, 2013, “대학원생의 학문적 글쓰기 경험에 관한 연구”, 『교육문제연구』, 제26권, 1호, pp. 35-57, 교육문제연구소.
- 김희삼, 2010, “지방대학 졸업자의 노동시장 성과와 지역별 교육격차”, 『한국개발 연구』, 제32권, 2호, pp. 58-92, 한국개발연구원.
- 남춘호, 2003, “교육불평등과 노동시장”, 『지역사회학』, 제4권, 2호, pp. 5-43, 한국지역사회학회.
- 동남지방통계청, 2023, “수도권으로 떠난 청년과 남은 청년의 삶의 질 비교”, 『동남지방통계청 보도자료』, pp. 1-10, 동남지방통계청.
- 박순용, & 김아람, 2017, “공대 대학원생의 대학원 생활 및 진로에 대한 질적 사례연구”, 『역량개발학습연구(구 한국HRD연구)』, 제12권, 2호, pp. 109-137, 한국HRD학회.
- 박지현, & 김현주, 2020, “상담전공 대학원생의 석사학위 논문작성 과정에 관한 근거이론 연구”,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 제14권, 3호, pp. 121-156,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학회.
- 방하남, & 김기현, 2002, “기회와 불평등: 고등교육 기회에 있어서 사회계층간 불평등의 분석”, 『한국사회학』, 제36권, 4호, pp. 193-222, 한국사회학회.
- 변금선, 김상일, 김승연, 김진하, 안현찬, 김성아, 박민진, 임아름, 류아현, 이종선, 2023. 『2022 서울청년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서울연구원.
- 서정원, 2015, “엄마대학원생의 학업”, 『여성연구』, pp. 83-118, 한국여성연구소.
- 송기영, 2024.1.30. “출발점 달랐던 두 청년, 10년 후 모습은… 빈곤 대물림 겪는 2030”, 조선일보, <https://biz.chosun.com/stock/finance/2024/01/23/F51NZN6JINBI5MNB3AVPWEDLY/>.
- 송효진, & 신동주, 2014, “여성기술인력과 공학교육,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평가-교수전략, 학습자

- 참여, 그리고 문화를 중심으로”, 『여성연구』, 제86권, 1호, pp. 103-136, 한국여성연구소.
- 신민정, 2020. 4. 22. “대졸 신입사원 평균연령 30대... 원환위기 때보다 6살 늘었다”,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economy/working/941533.html>.
- 안지호, 2023.11.7. “‘서울에서 살래요’ ...청년 수도권 쏠림 현상 심화, 10년간 20년간 20대 60만 명 이동”, 1코노미 뉴스, <https://www.1conom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738>.
- 오창환, & 정철영, 2009,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의 대학원 진학 선택 결정요인”,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제41권, 4호, pp. 199-218, 한국농업교육학회.
- 유나, & 박성석, 2021, “외국인 대학원생의 학술적 글쓰기 어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및 그 영향 경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제61권, pp. 95-126, 한국어교육학회.
- 유민상, 신동훈, 신영규, & 박미희, 2022, “청년 사회 첫 출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II: 성인 이행기 청년의 자립”, 『협동연구보고서』, 2022, pp. 1-387, 한국고용정보원.
- 이수비, 신예림, & 윤명숙, 2022, “청년의 상대적 박탈감이 자살에 미치는 영향: 미래전망과 사회적 고립의 순차적 매개효과”, 『보건사회연구』, 제42권, 2호, pp. 369-389,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수비, 최윤주, & 이현옥, 2021, “청년층의 사회경제적 박탈 경험이 우울의 변화유형에 미치는 영향: 7 가지 박탈 영역을 중심으로”,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제38권, 5호, pp. 45-56,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
- 이수정, & 김승정, 2020, “일반대학원 교육학과 석사과정생의 대학원 학습경험과 진로에 관한 연구”, 『아시아교육연구』, 제21권, 3호, pp. 879-906, 아시아교육연구학회.
- 이수정, & 김승정, 2020, “일반대학원 교육학과 석사과정생의 대학원 학습경험과 진로에 관한 연구”, 『아시아교육연구』, 제21권, 3호, pp. 879-906, 아시아교육연구학회.
- 이영학, 2012, “한국의 연구중심대학 분류 방안 연구”, 『교육정치학연구』, 제 19권, 2호, pp. 49-71, 한국교육정치학회.
- 임윤서, & 안윤정, 2017, “서울에서 ‘지방출신 여대생’으로 살아가기: 서울살이에 대한 포토보이스 적용”, 『아시아여성연구』, 제56권, 2호, pp. 205-256, 아시아여성학회.
- 임은미, 강혜정, 김성현, & 구자경, 2018, “한국 상담자의 다문화 상담역량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상담학연구』, 제19권, 1호, pp. 421-442, 한국상담학회.
- 임희진, 2021, “지방대학 중국인 박사과정 유학생들의 진학동기와 진로계획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학연구』, 제27권, 2호, pp. 187-219, 한국교육학회.
- 임희진, 김소현, 박혜연, & 김경호, 2016, “연구중심대학 석사과정 학생의 대학원 학습경험에 대한 연구”, 『아시아교육연구』, 제17권, 3호, pp. 379-408, 아시아교육연구학회.
- 전재은, & 김민선, 2021, “대학원생의 대학원 진학 동기와 학업지속 의도의 관계: 학업스트레스와 대학원 교육만족도의 매개효과”, 『교육학연구』, 제59권, 2호, pp. 129-157, 한국교육학회.

정수남, & 김정환, 2017, “잠재적 청년실업자’들의 방향과 계급적 실천”, 『문화와 사회』, 제23권, pp. 195-264, 한국문화사회학회.

정숙정, 2021, “‘여성× 농민’의 교차성: 여성농민의 불평등 경험과 정체성”, 『농촌사회』, 제31권, 1호, pp. 93-153, 농촌사회학회.

조성현, 2024. 8. 18. “‘그냥 쉬는’ 청년 44만 역대 최대... 75%는 “일할 생각 없다”“, 청년일보, <https://www.youthdaily.co.kr/news/article.html?no=162649>.

주형일, 2010, “지방대에 대한 타자화 담론의 주관적 수용의 문제: 자기민속지학 방법의 적용: 자기민속지학 방법의 적용”, 『미디어, 젠더 & 문화』, 제13권, pp.75-113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지은주, 류한소, & 이민아, 2024, “청년니트 (NEET) 의 자살생각 및 우울: 수도권과 비수도권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제47권, 2호, pp. 33-55, 한국인구학회.

차성현, 엄문영, & 민병철, 2014, “대학원 진학 결정의 영향요인 분석”, 『교육재정경제연구』, 제23권, 2호, pp. 209-233,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최종렬, 2017, “‘복학왕’의 사회학: 지방대생의 이야기에 대한 서사분석”, 『한국사회학』, 제51권, 1호, pp. 243-293, 한국사회학회.

한지민, 서정길, & 용정순, 2024, “합의적 질적 연구 (CQR) 방법을 활용한 석사과정 대학원생의 학업적응에 관한 연구: 촉진요인과 저해요인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제21권, 1호, pp. 71-106, 한국심리학회.

황희원, 2024. 10. 27. “학령인구 줄어드는데... 수도권 대학 쏠림 심화”, 전북중앙, <https://www.jjn.co.kr/news/articleView.html?idxno=985253>.

홍성표, & 임한려, 2020, “대학 소재지에 따른 청년의 노동시장 이행 궤적 분석: 수도권과 지방대학 졸업생의 비교를 중심으로”, 『노동정책연구』, pp. 117-147, 한국노동연구원.

Arnett, J. J., 2000, “Emerging adulthood: A theory of development from the late teens through the twenties”, *American Psychologist*, 55(5), pp. 469-480,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Bair, C. R., & Haworth, J. G., 2004, “Doctoral Student Attrition and Persistence: A Meta-Synthesis of Research”, *Higher Education: Handbook of Theory and Research*, 19, pp. 481-534, Kluwer Academic Publishers.

Blau, P. M., & Duncan, O. D., 1967, *The American Occupational Structure*, John Wiley and Sons.

Bourdieu, P., 1996a, *구별짓기: 문화와 취향의 사회학*[Distinction: A social critique of the judgement of taste] (최종철 역), 새물결. (원전은 1979에 출판).

Bowles, S., & Gintis, H., 1976, *Schooling in Capitalist America*, Basic Books.

Collins, R., 1979, *The Credential Society: Historical Sociology of Education & Stratification*, Academic Press.

D'Andrea, M., & Daniels, J., 2001, "RESPECTFUL counseling: An integrative multi-dimensional model for counselors", In D. B. Pope-Davis & H. L. K. Coleman (Eds.), *The intersection of race, class, and gender in multicultural counseling*, pp. 417-466, Sage.

Deterding, N. M., & Waters, M. C., 2021, "Flexible coding of in-depth interviews: A twenty-first-century approach", *Sociological methods & research*, 50(2), 708-739. Sage.

Hays, P. A., 2008, *Addressing cultural complexities in practice: Assessment, diagnosis, and therapy*(2nd edition),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Hopwood, N., 2010, "Doctoral experience and learning from a sociocultural perspective", *Studies in Higher Education*, 35(7), pp. 829-843, Routledge.

Hurst, A. L., Roscigno, V. J., Jack, A. A., McDermott, M., Warnock, D. M., Muñoz, J. A., ... & Vitullo, M. W., 2024, The Graduate School Pipeline and First-Generation/Working-Class Inequalities. *Sociology of Education*, 97(2), pp. 148-173, Sage.

Jack, A. A., 2019, *The privileged poor: How elite colleges are failing disadvantaged students*. Harvard University Press.

Jack, A. A., & Bassett, B. S., 2024, "Pink Slips (for Some): Campus Employment, Social Class, and COVID-19", *Sociology of Education*, 97(4), 299-315, American Sociological Association.

Lareau, A., 2018, *Unequal childhoods: Class, race, and family life*, Routledge.

McWhirter, E. H., Hackett, F., & Bandalos, D. L., 1998, "A causal model of the educational plans and career expectations of Mexican American high school girl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5(2), pp. 166-181,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Shin, J. C., Kim, S. J., Kim, E., & Lim, H., 2018, "Doctoral students' satisfaction in a research-focused Korean university: Socio-environmental and motivational factors", *Asia Pacific Education Review*, 19(2), pp. 159-168, Springer.

Zhao, C. M., Golde, C. M., & McCormick, A. C., 2007, "More than a signature: How advisor choice and advisor behaviour affect doctoral student satisfaction", *Journal of Further and Higher Education*, 31(3), pp. 263-281, Taylor & Francis.

작은연구 좋은서울 2024-09

지방대를 졸업하고 서울권 대학원에 진학한
학생은 어떤 경험을 하는가?

발행인 오 균

발행일 2024년 12월 20일

발행처 서울연구원

비매품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이 출판물의 판권은 서울연구원에 속합니다.

비매품